

2013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 목련리포트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TOWARDS  
GLOBAL  
EMINENCE

경희대학교

2013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2013년 4월  
경희대학교 총장실



### 새 천년 지구공동사회 대선언

1. 우리 인류는 물질문명과 과학기술문명의 한계점에서 오는 인간소외, 인간경시의 배인간화 사회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물질과 역사문명의 주인이 되고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중심의 인간사회를 조속히 건설한다.
2. 우리 인류는 힘이 정의요, 선이라고 하는 악육간식의 정물 법칙에서 벗어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화세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사관에 입각한 문화규범 즉, 참된 인간의 가치관을 세운다.
3. 이제 배타적 국가주의, 이념적 계급주의 시대는 가고 바야흐로 국제화, 민주화를 지향하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온 인류의 자유, 평등과 공영, 그리고 대소국의 동권과 공존을 보장하는 보편민주사회를 이룩한다.
4. 국제화, 민주화, 인간화, 복지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류는 지역간의 대립에서 벗어나 지역협동사회를 이룩하고 더 나아가 Pax UN을 중심으로 지구공동사회를 만들어 세계 영구평화를 구현하고 인류의 문화복지사회를 이룩한다.
5. 또한 도덕과 인간성을 회복하고 화해와 협동의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사회평화 대기를 조성하기 위한 Neo-Renaissance 운동에 앞장서서 인간적인 인간사회, 문화적인 복지사회, 보편적인 민주사회를 이루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 목차

## 발간사

## Special Report

### ‘학문과 평화’의 스승, 미원 조영식美源 趙永植 박사 영면

- 문화세계 창조를 꿈꾸었던 ‘교육의 선구자’ 16
-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선 ‘실천적 사상가’ 19
- 세계평화의 길 제시한 ‘평화의 창조자’ 20
- ‘경희 100년’에 보내는 미원 조영식 박사의 미래메시지 21

## I.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미래대학의 길

### 1. 21세기 명문대학을 향한 학술적 토대 구축

- 경희의 학술 역량, 질적 도약
  - 2007~2012년 국내의 대학평가 순위 25
  -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입증된 연구 탁월성 25
  - 상하이교통대학평가, 국내 10위권 대학 중 최고 수준 상승 26
  - 5년간 전임교원 590명 신규 임용, 활기찬 연구 분위기 조성 27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3년 연속 ‘우수대학’ 평가 27

### 2. 가지 않은 길, 미래대학의 길

- 21세기 세계적 명문을 향하여
  -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29
  - 새로운 명문의 조건 ‘학술진흥 2020’ 30
  -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30
  - 학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31
  - 전문행정을 위한 성찰과 도전 31

## II. 학문과 평화

### 1. 교육

#### 대형 국책사업 선정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35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대학 35
-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36
-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36
-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선정 36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 36

#### 줄 이은 강연

- 석학초청특강, 슬라보예 지젝 37
- 후마니타스 콜로키움,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 37
- Peace BAR Festival 2012,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 37
- 미원랙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38
- 미원랙처, 피터 카젠스타인 코넬대 석좌교수 38
-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홍콩과학기술대 마이클 펑 기획처장 38

#### 교육 부문 주요 성과

-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00% 합격 39
-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39
- 치의학교육인증평가 '4년 인증' 획득 39
- 9개 공학교육인증평가 획득 39
- 입학사정관제 확대·학생생활 충실자 전형 신설 40
- 중앙도서관, 2012 대학도서관 발전기관 선정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40
-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구성원 대토론회 개최 40
- 정년연장교원제도 시행 40

- 2012 미래문명원 콜로키움 개최 41

####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2년

- 후마니타스칼리지 간담회 42
- 인간·세계·문명에 대한 이해 돕는 '이스탄불 프로젝트' 42
- 국제캠퍼스 기숙교육 프로그램 운영 42
- 제1회 학술심포지엄,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43
- 2012학년도 봄학기 '공존의 정의, 공생의 윤리' 기획 특강 43
- 제2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43

## 2. 연구

#### 세계가 주목한 경희 연구

- 김백 석학교수, <네이처>에 논문 발표 45
- 이동훈 교수, 국내 최초로 우주탐사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45
- 장진 교수팀, 미국 전기전자학회 최고 논문상 수상 46
- 김선국 교수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어드밴스트 머터리얼스> 논문 게재 46
- 박욱 교수팀, QR코드 마이크로 식별자 개발로 <어드밴스트 머터리얼스> 논문 게재 47
- 최석호 교수팀, 나노과학 저널 <ACS Nano>에 논문 게재 47
- 윤태영 교수, <Brain>에 논문 발표 47
- 이용택 교수, <멤브레인 사이언스 저널> 선정 최다 인용 논문 선정 47

#### 연구 부문 주요 성과

-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16개 사업단(팀) '우수' 이상 등급 48
-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연구 사업팀, 교과부장관 표창 48
- 논문 인용 횟수 많은 대학 2위 48
- 한의학연구소 영문학술지 <OPEM>, 세계 최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Scopus 등재 49
- 김형민 교수팀 논문, 교과부 '기초연구 우수성과' 선정 49
- '2012 경희 Fellow' 10명 선정 49

- 이정식 석학교수, 경암학술상 수상 50
- 김정원 교수, 세계 최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음반 발표 50
- 박규창 교수팀, 차세대 조명기기 FDL 개발 및 상용화 추진 50
- 김정태 교수, 제1회 서울시 좋은빛상 대상 수상 50
-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51
- 미래과학 클러스터 토론회 개최 51

### 3. 실천

#### 지구사회봉사단(GSC)

- 지구사회봉사단 간담회 53
- 지구사회봉사단 합동회의 53
- KOICA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선정 54
- 몽골봉사단 활동 및 몽골 대통령 훈장 수훈 54
- '2012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 55
- 토요 아이들의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 55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물래산타 페스티벌' 55

#### 실천 부문 주요 성과

- 국내 대학 최초, UN ECOSOC 특별협의 지위 획득 56
- Peace BAR Festival 2012 '인간, 정치, 문명' 주제로 개최 56
- 유네스코 워크캠프 파견 57
- 경희봉사단, 봉사페스티벌 개최 57
- 국제캠퍼스 생활관 '작은나눔봉사단' 운영 57
- UN·국제기구 인턴십 학생 선발 57

### 4. 의과학

#### 의료기관

- 임영진 교수, 제15대 경희의료원장 취임 59
- 2012년 의료기관 연찬회 ‘대전환, 경희의 미래 의료의 미래’ 59
- 박문서 교수, 제3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취임 60
- 경희가족 정신으로 이뤄낸 노사화합 60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치료품질 소비자 만족도 1위 60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헬스조선 메디컬·건강산업 대상 수상 61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61
- 희망나눔 토크 – 암을 넘어선 삶(Life Beyond Cancer) 개최 61

#### 의과학 부문 주요 성과

- 국내 최초로 의·치·한의대 3개 대학에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사업 선정 62
- 치의학전문대학원, 종합진료실 교육환경 개선 기념식 개최 62
- 이길연 교수팀, 대한임상중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62
- 장건호 교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새로운 측정 방법 개발 63
- 박성욱 교수팀, 침·봉독약침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 최초 입증 63
- 조선영 교수, 일본혈액학회 ‘2012 Travel Awardee’ 선정 63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사 3인, 국제학술대회 석권 63
- 배현수 교수팀, 봉독의 파킨슨병 치료기전 발견 64
- 송미연 교수팀, 만성요통 침 치료 효과 입증 64
- 강철훈 교수팀, 신개념 약물 전달 복합체 개발 64

#### 국내외 의료봉사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국 연변(延邊) 의료봉사 65
- 경희의료원, 몽골 울란바토르 의료봉사 6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대상 무료진료 65
-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사랑과 희망 나누기’ 의료봉사 65

### III. 세계와 경희

#### 1. 국제화

##### 해외 파견 및 교류 협력

- 해외 16개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 체결 69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 '우수 인증대학' 선정 69
-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69
- 2012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 개최 70
- 단과대학 자체 해외 파견 프로그램 진행 71
- 특별 파견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71
- Global Collaborative Abroad 71

##### 국제화 부문 주요 성과

- 세계 문화 체험의 장 '경희 외국인 한마당' 72
- 제15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72
- 한·태국 국제컨퍼런스 개최 72
- Fun Korean Lesson Trip 운영 72
- 문화동반자 한국어 과정 운영 73
-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73
-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73
- 국제교육원 재학생, 대외 행사 참가 및 수상 73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73

### IV. 창조와 도약

#### 1. 행정·복지·인프라

## 행정

- 국가고객만족도(NCSI) 3위 77
- 교직원연찬회 '미래대학과 전문행정 - 성찰과 도전' 개최 77
- 직원연구년제 본격 시행 78
-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 78
- 기획위원회사무국, '미래정책원'으로 개편 78
- 대학·의료기관 통합민원부서 '옴부즈팀' 신설 78
- 경희 공생(共生) 포럼 개최 78

## 복지

- 청운관·공학관 식당 리모델링 79
-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생, 131명 배출 79
- 201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 서울캠퍼스 '최우수'·국제캠퍼스 '우수' 80
- 국제캠퍼스, 교직원 Health Care Program 운영 80
- 정경대학, 장애학생용 엘리베이터 설치 80

## 인프라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신축사업 본격 추진 81
- 새 단장한 영문 홈페이지 오픈 81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81
- 경희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서비스 오픈 81

## 2. 대학문화

목련회의·목련예술제 83

###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

-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가지 않은 길' 84
- 2012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미래대학의 길, 우리는 어디에...' 84

- 2012학년도 하계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 개최 85
- 2012학년도 공학계열 연찬회 '공학의 도약, 경희의 미래' 85
- 2012학년도 전체교수회의 '대학다운 미래대학' 논의 85

#### 기부문화 확산

- 청강 김영훈 선생 유품 및 토지 기부 86
- 이태원 교수, 대학 발전기금 5억 원 쾌척 86
- 김연수 동문, 한의과대학 발전기금·장학금 기부 86
- 한의과대 학생 178명, 건축기금 1,500만 원 조성 87
- 이은태 명예교수,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87
- 간호대 교수 6명, 명예의 전당 헌액 87
- 이지수·이진욱 학생, 한의과대학 건축기금 기부 87

#### 대학문화 부문 주요 성과

- 사회공헌·예술문화 축전 '2012 청록별의 희망노래' 88
- 2012학년도 국토순례대장정 88
- 조인원 총장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 출간 89
- 경영대학원 특강, '이익과 가치,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개최 89
-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희망나눔 콘서트 개최 90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총장님과 즐기는 Brunch Time' 개최 90
- '세계적 명문 대학' 다짐한 신년교례회 91
- 2012 경희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 91
- 경희를 바꾸는 원탁토론회 개최 91
-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원시 인문학 교육 협약 91
- 영문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교육 부문 통합대상 수상 91

### 3. 전진하는 경희

체육부 연이은 선전

- 제93회 전국체전에서 금 7, 은 6, 동 6 수확 93
-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2연패 93
- 2012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 94
- 제29회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양궁대회 남녀 대학부 단체전 동반 우승 94
- 전국남녀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금 1, 은 2, 동 4 수확 94
- 2012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 준우승 94

#### 학생 수상 소식

- 최승현 학생, KB국민은행 '나도 뮤지컬 스타다!' 樂스타상 95
- 김원준 학생, 제10회 마이크로소프트 이매진컵 2012, 앱 챌린지 부문 3위 95
- 박선아·서지혜·장광훈·권민기·이태호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석권 95
- 김우태·박주령 학생,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95
- 박소라·이동진 학생, 2012 대한민국 인재상 96
- 이강진 학생, 경향신문·서울신문 신춘문에 문학평론 부문 동시 당선 96
- 이재원 학생, '2012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문 당선 96
- 홍성원 학생, 경기도 교육감기 겸 회장배 스키대회 3관왕 96
- 김현국 학생, 2012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특허청장상 96
- 호텔관광대 재학생·동문 '김치버스' 400일 세계 투어 97
- 최유리 학생, 한국국제음식박람회 고맷 챌린지 부문 은메달 97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3명, 전국 학생학술경연대회 대상 수상 97

####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100
- 총장 연설문 102
- 통계로 본 경희 2012 126
- 경희대학교 기구표 127

## 가지 않은 길,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



2012년 2월, 경희학원 설립자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마지막 남기신 시와 같이 인류와 우주, 문명 변환의 이치를 인간행동의 근간으로 인식해 오신 설립자께서 캠퍼스 곳곳에 유지를 남기고 새로운 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설립자와 함께한 지난 60여 년, 경희는 물었습니다. ‘더 나은 인간의 미래, 더 나은 지구  
구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 미래를 밝혀줄 창조적 문화세계에 도전하며,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지구적 존엄”을 모색했습니다.

2012년 경희의 큰 화두는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함께 숙의해온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논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 건설을 위한 “대전환”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꿔온 “경이로운 경희”의 미래. 그 길을 위해 ‘가지 않은 길’을 나섰습니다. 대학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학술과 행정, 공적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지향하며,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기했습니다.

경희는 ‘석학의 길, 거장의 길, 대가의 길’을 중시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학문의 길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선 진취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초와 실용, 교양과 전공을 더욱 심화하고,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희엔 학술 부문의 지구적 탁월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있습니다. 더욱 활발한 학문 간 연계협력을 위한 추가적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인류문명, 문화예술, 미래과학, 바이오헬스, 사회체육 분야의 소통과 창조를 위한 클러스터 설립에 관한 노력이 그 일환입니다. 경희는 이와 함께 21세기 고등교육기관의 미래를 열어갈 석학, 거장, 대가의 길을 지원할 것입니다. 교수진 한 분 한 분이 세계적인 학자의 길을 열어가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과 사회, 인류를 위해 ‘더 큰 학

습'에 도전하는 꿈과 포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취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대학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래대학 건설을 위해선 창조행정과 함께 배려와 존중, 봉사와 헌신의 행정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치와 함께 경희는 그간 '대학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환의 근간엔 "자율운영"과 "미래협약"이 있었습니다. 자율운영은 대학 구성기관의 창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수, 학생, 교직원이 함께한 미래협약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학문화와 함께 새로운 대학의 미래를 지향했습니다. 경희는 이를 통해 더 큰 사회적 신뢰, 지구적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2012년에도 경희는 '학술과 실천,' '학문과 평화'의 양 날개를 펼치며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더 나은 자아와 세계를 성찰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 봉사와 기여의 정신을 이어가는 지구사회봉사단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인문, 자연, 우주, 사회, 공학, 의과학,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된 경희 교수진의 논문, 저서, 창작, 실천, 의료, 체육, 봉사, 기여 활동은 인류의 문화, 건강, 복지를 향상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2012년 한 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경희의 여정이 『2013 목련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더 나은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3년 4월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 ‘학문과 평화’의 스승 미원 조영식美源 趙永植 박사 영면

2012년 2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美源 趙永植) 박사가 경희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장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김용철) 학원장(學院葬)으로 거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6천여 명의 조문객이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2월 23일 오전 9시 영결식이 엄수됐다. 경희 구성원은 ‘학문과 평화’의 스승을 영원히 떠나보냈다.



“끝없는 저 하늘 / 하늘 뒤에 하늘이 / 그 뒤에 또 아득한 하늘이  
이어진다. / 내가 누구이길래 /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며 /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 故 미원 조영식 박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1991

## 문화세계 창조를 꿈꾸었던 '교육의 선구자'

### 피난지 부산에서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다



조영식 박사는 1921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광산을 경영하는 부친 조만덕(趙萬德)으로부터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청년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체육대학에 입학했다.

1943년 10월 졸업을 앞두고 귀국해 오정명(吳貞明)과 결혼했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세우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했다. 1948년 27세에 첫 저서 『민주주의 자유론』을 발표했다. 1950년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계에 입문해 공화민정회 조사국장 겸 법제사법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해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려면 먼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영식 박사는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했다. 그의 나이 30세 때였다.

### 경희정신으로 난관 극복, 1953년 제1회 졸업생 배출



당시 신흥초급대학은 가인가 상태의 2년제 대학이었다. 모집정원은 3개 학과, 150명에 지나지 않았다. 조영식 박사는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教育立國)”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했다. 부산역 맞은편 언덕 위에 교지를 마련하고 1951년 8월 20일 개강했다. 이날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 교육목표, 교훈, 교육방침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민주주의적 처리 능력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방침으로 정한다.”

1952년 2월 3일 문교부로부터 정식으로 초급대학 인가를 받았다. 12월 9일 4년제 대학 설립인가를 획득했다. 1953년 1월 9일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동대신동 2가 87번지에 700평의 부지를 새로 매입했다. 착공 2개월 만인 3월 20일 새 교사를 건립했다. 1953년 3월 30일 경희의 첫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 이날 제1회 졸업생 45명이 배출됐다.

### 1953년 국내 대학 최초의 마스터플랜 수립



1953년 휴전 직후 서울로 대학을 이전하기로 결심했다. 휘경동 고향산(옛 천장산) 일대에 30만 평의 교지를 확보했다. 국내 대학 최초의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구상했다. 마스터플랜 핵심은 본관 석조전 신축이었다. 높이 16.3미터, 지름 1.36미터의 원형 돌기둥 14개가 떠받치고 있는 본관(중앙부) 규모는 4개층, 연면적 3,800평에 달했다.

이밖에도 12미터 높이의 아치형 정문(등용문), 동양 최대 규모의 중앙도서관, 종합운동장, 체육대학관, 본관 앞 정원과 분수대, 노천극장 등 현재 서울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건축물과 자연경관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본관 석조전 중앙부는 1956년 7월 30일 준공됐다. 본관은 종합대학교 도약을 꿈꾸는 경희의 상징이었다. 석조전은 순수 국내기술로 지어진 석조건물이라는 건축사적 의미도 지닌다.

### 종합대학교 승격, 창조적 학술문화 창달

1955년 경희는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체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갖춘 종합대학교로 승격했다. 그해 개교기념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경희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의 이 대학에 대한 책임은 오직 훌륭한 대학을 건설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든 우수한 대학이 될 때까지 만년을 무릅쓰고 젊음의 정열을 쏟는 일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생은 공부하고 교수는 연구하는’ 학풍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했다. 창조적 대학문화 정착에도 힘썼다. 1955년 5월 문예, 학술, 체육, 예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1956년 10월 국내 대학축제의 효시인 학원제를 개최했다.



###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비전

1958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조영식 박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여 개국의 명문대학을 방문해 다양한 교육제도를 연구했다. 1959년 4월 20일 해외 순방 성과와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힘을 얻었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실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도서관과 학생회관 운영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할 생각이다.”

### 경희학원 설립,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교육체제 확립

1960년 3월 1일 학교 이름을 경희대학교로 개명했다. 경희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룩했던 영·정조 시대의 정궁(正宮) 경회궁에서 따왔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를 구현하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경희의 비전에 걸맞은 교명 변경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 창학정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정신을 공유하는 일관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61년 경희학원이 설립됐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년제 초급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에 이르는 일관교육체제가 완성됐다.



### 학과 증설을 통한 성장과 ‘미래메시지’ 발표

조영식 박사는 종합대학 편제를 갖추기 위해 음악대학(1964), 사범대학(1965), 의과대학(1966), 약학대학(1966) 산업대학(1968), 공과대학(1969) 등 6개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대학원 증설도 추진했다. 경희대 대학원은 1954년 법률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2개의 석사학위 과정으로 출발했다. 1969년 석사학위 과정 17개, 박사학위 과정 11개 학과로 늘어났다. 1964년 10월 2일 개교 15주년 기념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이하 미래메시지)와 양케이트 결과를 발표했다. (21쪽 참조)



### 세계대학총장회(AUP) 서울대회 개최, 국제적 위상 높여

1968년 6월 18일 세계대학총장회(AUP) 제2차 대회를 경희대에서 개최했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조영식 박사 주도 아래 1965년 6월 29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창립된 세계 지성의 모임이



다. 세계대학총장회 창립대회 기조연설에서 조영식 박사는 “대학 총장들은 다음 세대의 지성을 육성하고, 또 현세대 지성인을 이끌고 있음을 자각하여 각 민족의 상호이해와 발전을 위해 학술·문화 교류를 도모하고, 인류는 공동 번영을 기해야 하며, 인류의 모든 지혜와 정력은 복리 증진과 가치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8년 6월 18일 제2차 대회에 맞춰 개막식장인 중앙도서관이 완공됐다. 세계 35개국 대학 총장 105명,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보도진 등 총 1,000여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1968년 대한민국 정부 10대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됐다.

### 경희의료원 개원과 ‘제3의학’ 창안

197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이 개원했다. 경희의료원은 1,000병상 규모의 동양 최대 병원이었다. 준공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료원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것, 국가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질병 없는 인류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경희의료원 개원은 ‘제3의학’ 창안이라는 학술적 의의도 지닌다. 1965년 동양외과대학 인수 과정에서 조영식 박사는 동양외과학과 서양외과학을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학’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제3의학에 대한 경희의 의지는 뒷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옛 동서신의학병원) 건립으로 이어졌다. 1999년 7년간의 작업을 거쳐 『동양의학대사전(12권)』을 발간했다.



### 교육개혁을 통한 경희의 질적 도약

1970년대 들어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했다. 교수연구 고과제도를 도입해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가르치는 대학’의 토대를 확립했다. 197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제도를 후기모집에서 전기모집으로 전환했다.

### 국제캠퍼스 설립

1978년 3월 경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교’ 설립을 결정했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의 목표는 ‘분교’ 설립이 아니었다. 독립적인 ‘제2 캠퍼스’ 건설이었다. 모델이 된 것은 세계 명문대학의 ‘뉴 칼리지 시스템’이었다. 뉴 칼리지 시스템의 교육목표는 폭넓은 기초학문 위에서 인간교육과 전공교육을 병행하고, 도덕교육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격을 갖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1979년 개교 첫째 정부에 의해 허가된 경기도의 국제캠퍼스 편제는 3개 학부 8개 학과였다. 신입생 모집정원은 450명이었다. 1980년 9월 15일 국제캠퍼스 첫 건물인 공과대학관이 준공됐다. 조영식 박사는 처음부터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각기 특성화된 종합캠퍼스로 발전하면서 ‘경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통합되기를 원했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과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편제를 구성했다.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특성화가 이뤄져 있다. 국제캠퍼스는 2011년 8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희대 캠퍼스 통합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서울캠퍼스와 통합됐다. 조영식 박사가 구상했던 ‘하나의 경희’는 3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선 실천적 사상가

### 문화세계 창조론과 경희가족운동

1951년 조영식 박사는 두 번째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를 펴냈다. 이 책에서 조영식 박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편의지에 입각한 ‘문화규범’이 ‘자연규범’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평화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했다.

조영식 박사는 교육·연구·실천의 유기적 결합, 대학의 사회적 공헌에 의해 문화세계가 창조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을 선도했다. 1956년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산림녹화운동을 전개했다. 1963년 5월 18일 개교기념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경희가족운동’과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을 제창했다. 경희가족운동은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까지도 하나의 경희가족 정신으로 단결해 더 나은 문화세계 건설에 기여하자는 약속이었다.



### 새마을 운동 모태가 된 경희의 잘 살기 운동

1965년 10월 12일 경희 학원제에서 조영식 박사는 잘 살기 운동을 제창했다. 11월 조영식 박사는 잘 살기 운동 이념과 실천 방안을 정리한 저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를 발표했다. 이 책을 세 번 읽었다는 박정희 대통령은 뒷날 “새마을 운동은 쉽게 말하자면 잘 살기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 선의, 협동, 봉사의 밝은사회운동

1975년 10월 28일 ‘밝은사회운동 경희학원 결성대회’가 개최됐다. 밝은사회운동의 약칭은 GCS 운동이다. 선의(Goodwill), 협동(Cooperation), 봉사·기여(Service)의 영문 머리글자에서 따온 이름이다. 밝은사회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은 1975년 발표된 『인류사회의 재건』이었다. 이 책을 집필하고 있던 1974년 조영식 박사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류학자대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 주제는 ‘교육을 통한 인류사회의 재건’이었다. 집필 중이던 책 내용을 요약한 이 연설은 7개 항의 ‘인류사회 신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밝은사회운동은 국제적 사회운동으로 확산됐다. 1979년 창립된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밝은사회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 오토피아 사상과 인류사회재건운동

1979년 조영식 박사는 자신의 사상을 집약한 저서 『오토피아(Oughtopia)』를 발간했다. 오토피아는 지구상에 건설되어야 할 문화세계, 인간 중심의 지구공동사회를 지향했다.

인류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당위적 요청사회(Oughtopia)’를 향한 경희의 지구적 실천은 인류사회재건운동으로 전개됐다. 오토피아 사상은 인간 중심의 사회 건설, 문화규범 정립, 보편 민주주의 확립, 지구공동사회 구축, 팩스 유엔(Pax UN) 체제 구현 등 5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 세계평화의 길 제시한 평화의 창조자

###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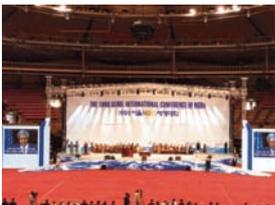


1981년 6월 28일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세계대학총장회(AUP) 제6차 총회에서 조영식 박사는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해 제36차 유엔총회 공식 안건(Agenda 133)으로 상정됐다. 유엔은 매년 9월 세번째 화요일(현재는 9월 21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선포했다.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했다. 세계평화를 위한 경희의 실천적 의지는 1984년 평화복지대학원(광릉캠퍼스) 설립으로 이어졌다. 1990년 9월 광릉캠퍼스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평화의 탑’을 건립했다. 이 탑에는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1993년 유네스코(UNESCO)는 평화복지대학원에 평화교육상을 수여했다.

### 세계평화대백과사전 발간

1987년 4년간의 노력 끝에 영문판 『세계평화백과대사전(World Encyclopedia of Peace)』 초판(전4권)이 영국 페르가몬 출판사(Pergamon Press)에서 출간됐다. 1987년 10월 서울NGO세계대회에 맞춰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증보·개정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 1999서울NGO세계대회 개최



조영식 박사는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세계평화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1997년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 NGO 단체들과 함께 서울에서 도덕 재건과 인간성 회복 회의를 갖고자 하니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유엔공보국(UNDP)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비정부기구협의회(CoNGO), 경희대학교는 공동으로 1999년 10월 10일 올림픽공원에서 1999서울NGO세계대회를 개최했다.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는 구호 아래 세계 107개국 1,360개 NGO를 대표하는 활동가와 시민 1만3,000여 명이 참가했다. 조영식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인류사회의 과업으로 인간 중심의 사회 건설, 문화 규범 정립, 보편 민주주의 확립, 지구공동사회 구축, 팩스 유엔(Pax UN) 체제 구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토피아 사상에 입각한 ‘지구공동사회대헌장’을 채택했다. 폐회식에서 이를 반영한 ‘서울밀레니엄선언문’을 채택했다.

2009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는 네오르네상스 정신에 입각해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 WCF), 세계시민청년포럼(World Civic Youth Forum, WCYF)을 창설했다.

네오르네상스 정신에는 교육의 선구자로서, 실천적 사상가로서, 평화의 창조자로서 미원 조영식 박사의 전 생애가 담겨 있다. 그 정신은 교육·연구·실천의 결합으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고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겠다는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통해 더욱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 ‘경희 100년’에 보내는 미원 조영식 박사의 미래메시지

미원 조영식 박사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중앙회의실(옛 학원장실) 금고를 개방했다. 그 안에는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와 양케이트가 포함된 9권의 책이 보관돼 있었다. 경희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사적 가치를 고려해 미래메시지를 공개하고, 거교적 차원에서 고인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 경희를 세계적인 명문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개교 100주년 미래메시지는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2개의 핵심어로 요약된다.

‘경이로운 경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다. ‘세계적인 대학’은 경희의 미래비전과 목표다.

첫 머리에서 조영식 박사는 작성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경희의 창학정신과 교육방침을 바로 전달하려는 취지에서이다. 둘째, 시대를 뛰어넘어 경희공동체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셋째, 후배들이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뜻에서이다. 넷째,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알려줌으로써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는 소망에서이다.

미래메시지는 경희정신,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경희정신 아래 수립된 경희의 교육방침은 인간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 등 네 가지다. 민주교육에 대한 방침은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경희의 교훈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조영식 박사의 목표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었다. 개교한 지 불과 15년에 지나지 않은 1964년에 이미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영영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것(미래비전)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미래대학의 길





# 21세기 명문대학을 향한 학술적 토대 구축

2012년은 경희의 학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교육, 연구, 실천, 행정 등 대학의 전 영역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특히 학술 부문 성과가 두드러졌다. 경희는 2011년 국내 종합대학 5위권, 세계대학 200위권, 아시아대학 40위권에 진입한 후 2012년에도 순위를 유지했다. 연구의 탁월성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최근 5년간 600여 명의 우수교원을 신규 임용하고 연구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질적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경희는 2012년 실시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 경희의 학술 역량, 질적 도약

### 2007~2012년 국내외 대학평가 순위

최근 6년간 경희의 학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07년 이후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경희는 국내 종합대학 5위권, 세계 대학 200위권, 아시아 대학 4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위 상승을 이끈 것은 연구의 탁월성이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경희는 2007년 12위에서 2010년 7위(종합대학 5위)로 뛰어올랐다. 2011년 7위를 유지하고, 2012년 8위로 한 계단 내려왔으나 7위 대학과의 점수 차는 0.7점이었 다. QS 세계대학평가 순위는 2007년 504위에서 2011년 245위로 상승했다. 2012년에도 270위 로 200위권을 유지했다.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경희는 2010년 62위에서 2012년 41위로 순 위가 올랐다. 순위 상승보다 더 주목할 것은 연구 관련 지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수연구 부 문에서 경희는 2007년 19위에서 2010년 9위로 10계단 뛰어올랐다. 이 순위는 2012년까지 유지 되고 있다.

QS 세계대학평가 학계 평판도는 2010년 416위에서 2011년 231위로 급상승했다. QS 아시아대 학 학계 평판도 역시 2010년 97위에서 2011년 50위로 47계단 올라섰다. 경희는 2012년에도 이 순위를 지켰다. QS 대학평가의 학계 평판도는 전 세계 수만 명의 학자에게 '자신의 학문 분야에 서 탁월한 대학을 꼽아 달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양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 적 평가에 해당한다.



###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입증된 연구 탁월성

2012년 5월 28일 발표된 QS 아시아대학평가 결과는 경희의 연구 탁월성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 준다. QS(Quacquarelli Symonds)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이다. 연구 능력, 교육 수준,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등 4개 영역, 9개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아시아대학 순위를 매긴다. 2012

2007~2012년 경희의 국내외 대학평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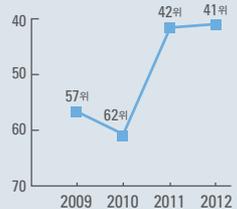
중앙일보 대학평가



QS 세계대학평가



QS 아시아대학평가



년에는 15개국, 461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4개 평가 영역 중에서도 연구 능력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학계 평판도 30%, 교원당 논문 수 15%, 논문당 피인용 수 15%).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교원당 학생 수 비중은 20%, 졸업생 평판도와 국제화 영역은 각각 10%를 차지한다.

QS 아시아대학평가는 연구 역량을 기능하는 데 유용한 설계로 이뤄져 있다. QS는 인문·예술, 생명과학·의학, 사회과학·경영, 자연과학, 공학·기술 등 5개 학문 분야별 학계 평판도를 순위와 함께 발표한다. 2012년 인문·예술 분야 학계 평판도에서 경희는 아시아 18위(국내 4위)를 차지했다. 생명과학·의학 분야 21위(국내 5위), 사회과학·경영 분야 26위(국내 5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자연과학 분야 38위(국내 7위), 공학·기술 분야 60위(국내 8위)였다. (표 참조)

2012년 경희는 교수당 논문 수(15%), 논문당 피인용 수(15%)에서도 2011년에 비해 각각 8계단, 33계단 상승했다. 2011년의 경우, 아시아 200위 안에 속한 대학의 SCI급 논문 증가율은 평균 32.9%였다. 경희는 그 3배가 넘는 109% 증가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 상하이교통대학평가, 국내 10위권 대학 중 최고 수준 상승

중국 상하이교통대학이 매년 8월 발표하는 '세계 연구대학 순위'에서 경희는 2012년 세계 425위(국내 8위)에 올랐다. 2011년에 비해 23계단 상승하며 국내 10위권 대학 중 최고 수준의 연구력 향상 속도를 기록했다. 국내 상위 3개 대학의 세계 순위는 서울대 133위, 연세대 228위, 카이스트 231위였다. 포스텍은 331위에 머물렀다.

상하이교통대학은 전 세계 상위 1,0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 역량을 평가한다. 교육의 질, 교수의 질, 연구 성과, 학문역량지수 등 4개 분야, 6개 지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한다. 타 기관과 달리 교육 여건, 사회적 평판, 국제화 등의 요소는 반영하지 않는다.

상하이교통대학은 베이징대학, 칭화대학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이다. 1896년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이공계 전통이 강하다. 장쩌민(강택민) 전 국가주석 출신 학교로 유명하다.



### 5년간 전임교원 590명 신규 임용, 활기찬 연구 분위기 조성

경희 연구 역량의 양적·질적 성장은 우수교원 영입, 연구지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다. 2007년 이후 경희는 교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했다. 5년 동안 590명이 신규 임용됐다. 전임교원 수는 2007년 1,180명에서 2012년 1,418명으로 20% 증가했다.



전체 교수의 41.6%에 해당하는 신진 인력 충원으로 활기찬 연구 분위기가 조성됐다. 인문·사회 교수 1인당 국내 논문 게재 수는 2007년 0.75편에서 2011년 1.46편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SSCI, A&HCI급 국제 논문 게재 수는 0.04편에서 0.24편으로, 과학기술 교수당 SCI급 국제 논문 게재 수는 0.73편에서 1.53편으로 각각 늘어났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점수도 183점에서 740점으로 4배 이상 높아졌다. 교수 1인당 SCI, SSCI, A&HCI급 논문 피인용 수가 1.76회에서 4.87회로 증가하는 등 연구의 질적 성장이 이뤄졌다.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3년 연속 '우수대학' 평가

2012년 실시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경희는 3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년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인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경희는 2012년 초 지원사업 선정으로 22억 9,300만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로 9,8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희는 5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35쪽 참조)

경희는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2007년 10.3%에서 2011년 18.35%로 높였다. 교수 확보율이 99.57%로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25.26명에서 23.45명으로 낮아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간 1,2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교육 투자가 이뤄졌다. 그 결과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이 163.6%로 크게 높아졌다. (35쪽 참조)

### QS 아시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학계 평판도

인문·예술 분야



생명과학·의학 분야



사회과학·경영 분야



자연과학 분야



공학·기술분야



# 가지 않은 길 미래대학의 길

학술적 성과의 토대 위에서, 경희는 21세기 새로운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다. 2012년 발표된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은 개교 70주년 이전에 아시아 정상, 개교 80주년을 맞는 2029년 세계 정상권에 도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학술과 평화'의 양 날개로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 비전과 목표를 위해 경희는 공간적, 학술적, 행정적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 수준의 학술문화 정착을 위해 '학술진흥 2020' 계획을 수립했다.

## 21세기 세계적 명문을 향하여

###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2012년 12월 22일 경희가족 송년회 'Magnolia 2012'에서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이 발표됐다. 경희는 2019년 개교 70주년 이전에 국내 정상을 넘어 아시아 정상으로, 2029년 개교 80주년 이전에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담대한 비전을 선언했다.

미래전략의 목표는 세계 정상권 '순위' 진입이 아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명문대학'의 위상 확립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적 소임을 다하고,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경희학풍 구현이다. 미래전략은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 지구적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이다. 미래전략은 자율운영에 기초한 연계 및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 차원에서는 비전, 핵심가치, 전략 기초, 영역별 지침 같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한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실행계획은 단과대학 등 단위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 추진한다. 자율성 원칙에 따라 각 단위기관은 특성화와 함께 수월성을 성취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연계·협력을 통한 융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경희의 미래전략은 2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다. 2011년 2월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종합발전 전략의 필요성과 수립 방안에 관한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7월 11일 출범한 발전전략위원회는 그해 12월 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2012년 2월부터 단과대학 토론회 등을 통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다. 6월에는 서울·국제캠퍼스에서 '총장 주재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전략의 핵심사업은 학술적 탁월성에 기초한 연계협력 클러스터 육성이다.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관련, 경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은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개 분야의 클러스터 육성이다. 모든 학과와 전공이 고루 참여하는 융복합 신학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희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전략 목표에 따라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 특성화를 추진해 대학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새로운 명문의 조건 '학술진흥 2020'



2012년 경희의 또 다른 화두는 '학술문화 진흥'이었다. 2012년 3월에 열린 1학기 합동교무위원 연찬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학술문화였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연구 잘하는 교수가 존경받고 학문적 권위가 바로 서는 학술문화 조성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기본 조건임을 확인했다.

지난 6년간 경희는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내부 역량을 축적해왔다.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획이 '학술진흥 2020'이다.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이후 경희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학술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학술진흥 2020'은 학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희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는 개교 60주년에 '지구적 존엄을 구현한다(Towards Global Eminence)'는 슬로건과 함께 공표된 경희의 핵심 가치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와 맥을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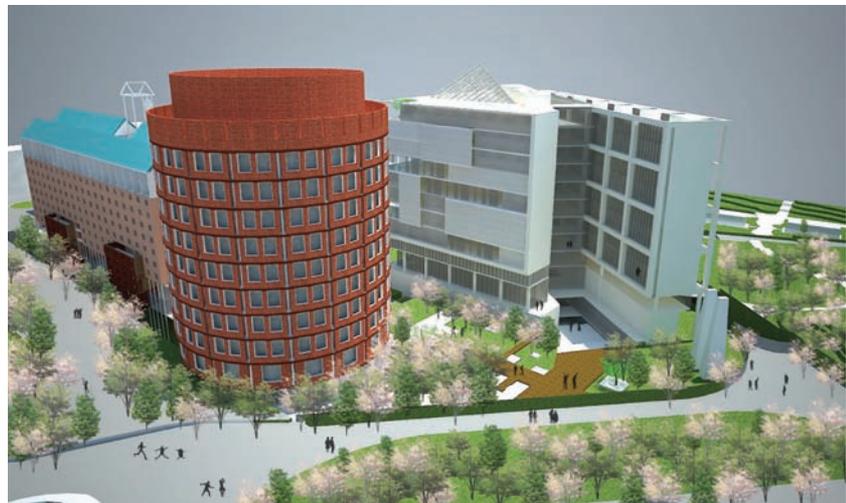
###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2012년 12월 28일 경희 구성원의 숙원사업인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캠퍼스 종합개발은 경희가 21세기 새로운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Space 21' 사업을 통해 경희는 교육 및 연구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미래교육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건물 증축에 머물지 않고 배려와 존중, 화합과 창조의 대학문화가 살아 숨쉬는 캠퍼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경희의 학술적 자산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대학의 지구적 공헌을 실천하는 지식 창조의 허브(hub)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캠퍼스 1단계 사업의 핵심은 글로벌타워, 한의과대학관, 이과대학관, 간호과학대학관, 공공기숙사 신축이다. 글로벌타워는 경희의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



반으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시민사회가 교류하는 NGO의 플랫폼으로서 교육·연구·실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국제캠퍼스 1단계 사업은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관, 종합체육관 신축이 중심이다. 수영장, 헬스클럽 외에도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될 종합체육관은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 학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의 여러 역할 중에서 본원적인 부분은 학술이다. 우수학생을 배출하려면 훌륭한 교수진이 필요하고, 훌륭한 교수진의 핵심은 탁월한 학문적 성취다. 안정적인 대학 재정, 산학협력, 관학협력 등도 학술 역량과 관계로 연결돼 있다. 이들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열정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2012년 경희는 교원정년연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석학급 원로교수 6명이 첫 수혜자로 선정됐다. 정년연장제도는 교육·연구·실천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의 정년을 70세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내외 석학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학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40쪽 참조)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제도를 개선했다. 논문의 경우 피인용지수(Impact Factor·IF) 등을 반영해 질적인 평가를 보완했다. 우수 저작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전공별·계열별·개인별 연구를 활성화하는 '맞춤형 연구지원제도'도 수립했다. 엄정한 평가, 합리적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07년 이후 경희는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해왔다. 우수교원초빙위원회를 운영했다. 에미넌트스칼라(Eminent Scholar), 인터내셔널스칼라(International Scholar) 제도를 도입해 해외 석학 영입을 적극 추진했다. 경희 Fellow, 목련상 제정 등을 통해 학문적 업적을 존중하는 학술문화를 고취했다.



### 전문행정을 위한 성찰과 도전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술, 실천, 행정 등 3개 부문이 조화를 이루며 총체적 탁월성을 구현해야 한다. 대학행정의 목표는 창의적 정책, 구성원이 만족하는 서비스, 건전한 재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 시스템, 행정인력 전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경희는 2007년부터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해왔다. 자율운영제도 실시, 대학 자체 평가(O&P Review), 구성원 만족도 제고(KSSI) 사업, 디지털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 직원연구년제 실시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2012년 경희는 국내외 명문대학 사례를 연구하며 더욱 선진적인 행정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8월에 열린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학술과 행정의 유기적 결합 및 발전 방안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11월의 교직원연찬회 주제는 '미래대학과 전문행정-성찰과 도전'이었다. 이를 계기로 경희는 '미래행정'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KYUNG HEE UNIVERSITY

# 학문과 평화





# 교육

교육·연구·실천이 융합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경희는 2012년에도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 선정됐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이 그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출범 2년째를 맞아 학제적·통섭적·융합적 교육을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슬라보예 지젝, 이매뉴얼 윌러스틴 교수를 초청하는 등 '강연'을 연이어 개최, 경희의 수준 높은 학술문화를 대내외에 알렸다.

## 대형 국책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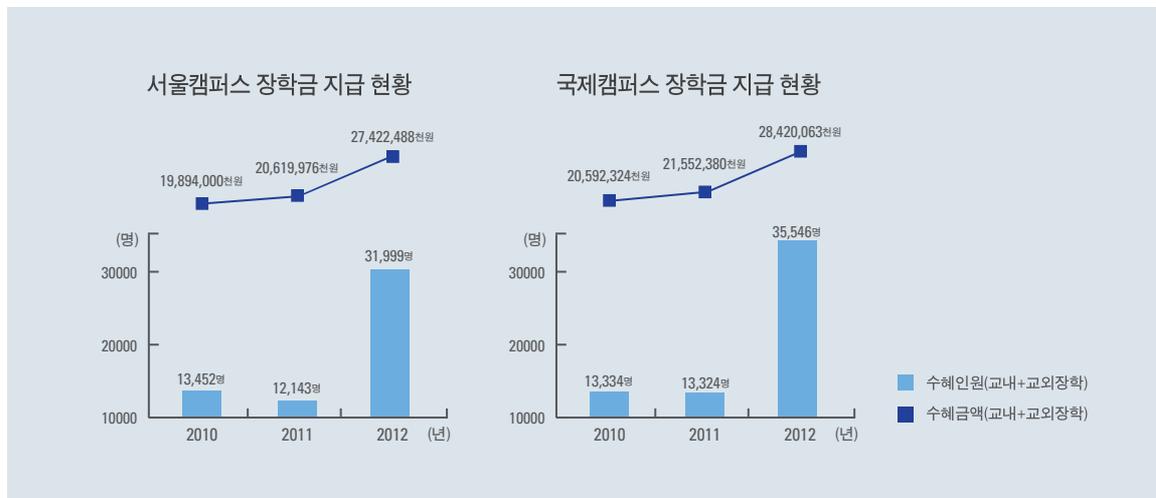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2012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22억 9,300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게 된 경희대학교는 전공 및 교양 심화,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 창의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tudy in Field 전공심화·현장연계 장학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진로 프로그램 △지식나눔 커뮤니티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 심화 '아레테(Arete)' △책으로 나온누리 △영어강의 맞춤형 교수·튜터·학생 연계포트폴리오 △Global Collaborative 등 7개 프로그램이 2012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운영됐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발전의 핵심 지표에 의해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희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 투자 등 정량지표가 타 대학에 비해 고르고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하율에서 타 대학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돼 9,8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매년 이 사업에 선정된 경희는 5년간 143억 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인턴십, 교환학생 해외파견, 취업진로 프로그램, 튜터링, 기숙교육 프로그램, 영예학생 프로그램(Pride & Honor Program), Global Collaborative, 경희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해온 결과, 3년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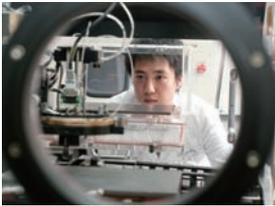
###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이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0년부터 3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입학사정관제 운영성도가 우수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입시 위주의 현행 중등교육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대학을 장려하는 제도다. 경희대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과 재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 '선발·육성·졸업 이후'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왔다.

###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단계 사업에 선정됐다. 2012년 2월까지 시행된 1단계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는 경희대학교는 각종 교내경진대회 개최, 다학제 간 창의적 종합 설계 과제, 산업체 멘토링 프로젝트 개발, 학부생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체 임직원 초청 세미나 등을 추진했다. 이로써 글로벌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경희대는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으로 2012년부터 최장 10년간 매년 2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선정



'2012년도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이문동과 회기동에 총 1,039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건립한다. 정부가 대학생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2012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서 경희대학교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23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희대는 국고지원금과 교비 30억 원을 투입, 총 265억 원을 기숙사 건립에 투자한다. 4개 대학, 6개 사업이 선정된 이번 사업에서 경희대는 3개 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캠퍼스에 새로 건립되는 기숙사는 총 3개동이다. 이문동 기숙사는 지하층을 포함, 8개층 규모에 수용 인원은 73명이다. 회기동 기숙사는 지하층을 포함, 5개층 규모에 수용 인원은 41명이다. 대운동장 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에 925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들어선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캠퍼스 기숙사는 2,605명(기존 1,566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돼 기숙사 수혜비율이 기존 9.7%에서 16.13%로 향상된다.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

지식경제부의 '제6기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GTEP)'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경희대학교는 약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 차례에 걸쳐 지원받게 됐다. 경희대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이 사업에 선정돼 무역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5년간 1~4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9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현재 2012년 7월 시작한 5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줄 이은 강연

### 석학초청특강, 슬라보예 지젝

2012년 6월 27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2 석학초청특강'에서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for politics)'를 주제로 강연했다. 지젝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있다"면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는 현 시스템이 극한점까지 왔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지젝의 강연은 대학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로 끝을 맺었다. 그는 "전문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만 지식인은 단순히 남이 규정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하나의 법칙으로 규명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 뒤, "전문가를 배출해 달라는 사회의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사명은 지식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 시작한 석학초청특강은 학계와 지성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대해, 나라와 인류 사회의 더 큰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이다.



### 후마니타스 콜로키움,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

2012년 6월 4일 '2012년 봄 후마니타스 콜로키움'에서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정치학·철학)가 '유교와 세계문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달마이어 교수는 세계 문명들의 관계에 주목한 뒤, '문명 간 대화'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그 관계망 속에서 동양의 유교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를 천착했다.

달마이어 교수는 "문화 혹은 문명들 간의 만남에서 가장 유망하고 유익한 방식은 그들 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대화의 방식 안에서 문화들은 상호 검증과 건설적인 비판에 의해 배움이 촉진되고 그 과정에서 총체성이 확립된다. 달마이어 교수는 이를 "상상력이 넘치는 창조적 재생을 통해 이뤄지는 문화들 간의 역동적 향연"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문화 혹은 문명 간의 '대화적 연대'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거의 강제적인 의무에 가깝다"고 말했다.



### Peace BAR Festival 2012,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

'제31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 개최 첫날인 2012년 9월 17일,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으로 저명한 예일대학교 이매뉴얼 월러스틴 석좌교수 초청 강연이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문명적 전환의 정치(The Politics of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라는 강연을 통해, 월러스틴 교수는 "500년간 지속돼온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뒤,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원렉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2012 미원렉처’가 2012년 8월 13일 평화의 전당에서 ‘유네스코(UNESCO)에서 본 21세기 평화의 토대(The Foundation of Peace in the 21st Century – UNESCO’s View)’를 주제로 개최됐다. 초청 연사는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다.

환영사에서 조인원 총장은 “경희대학교 광릉캠퍼스의 탑에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학술의 궁극적 의미는 평화로 귀결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고 소개한 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상호존중’이란 평화의 조건은 경희가 추구해온 가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평화를 위해 인간 존엄성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에 바탕을 둔 ‘뉴 휴머니즘(new humanism)’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뉴 휴머니즘’은 ‘양질의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평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면서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의 힘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미원렉처는 세계적인 국내외 석학과 거장, 실천인을 연사로 초빙해 우리 사회와 인류문명의 새로운 안목,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견해를 나누는 자리다.

### 미원렉처, 피터 카젠스타인 코넬대 석좌교수



‘2012 미원렉처’ 두 번째 특강이 12월 3일 오비스홀 111호에서 개최됐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이어, 미국 코넬대학교 피터 카젠스타인(Peter J. Katzenstein) 석좌교수가 연사로 초청됐다. 강연 주제는 ‘세계 정치와 문명: 동서양을 넘어서(Civilizations in World Politics: Beyond East and West)’였다. 카젠스타인 교수는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비판하며 “복잡하고 글로벌한 세계에서 관습적 사고와 공공 논쟁은 역설적이게도 동양과 서양이라는 단순 범주로 구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서양을 구분하고 문명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충돌을 예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현대의 정치인과 지성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동서양을 나누는 다리를 건너 지금껏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여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홍콩과학기술대 마이클 핑 기획처장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세 번째 강연이 2012년 1월 27일 개최됐다. 강연자로 나선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마이클 핑 기획처장은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이야기, 20년 만에 세계 명문대학이 될 수 있었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대학은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뒤 “대학의 이념과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수 및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마인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는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계적 학술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해당 학술기관이 독창적으로 축적해온 대학 운영 철학과 비전, 거버넌스, 발전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 교육 부문 주요 성과

###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00% 합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전원이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3월 개원 후,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로스쿨은 50명의 졸업생 모두 변호사시험에 지원, 100%의 합격률을 달성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00% 합격률을 기록한 대학은 경희대와 아주대뿐이다. 경희대와 아주대에 이어 고려대, 서울대, 한국외대가 상위 5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경희대는 변호사시험에 앞서, 예비검사 임용시험에서도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자 총 42명 중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2년 2월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대학평가인증기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 운영 전반의 질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대교협은 대학의 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에서 54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했다.



대교협은 “경희의 자율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과정이 타 대학의 모범이 된다”고 호평했다. “발전계획수립위원회 중심의 강한 추진력과 운영상의 조율 능력이 돋보인다”면서 “단과대학 중심의 자율운영과 평가 및 보상체계가 타 대학과 차별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평가에 인증심사 결과가 반영된다.

### 치의학교육인증평가 '4년 인증' 획득

치의학전문대학원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한 치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며, 이 기간 동안 치전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받게 된다. 치의학교육인증평가는 치과대학과 치전원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해당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은 치과의로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됐음이 보증되며, 나아가 국가 면허시험을 통해 치과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9개 공학교육인증평가 획득

공과대학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2012년 공학교육인증평가 결과 9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은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산업경영공학전문 프로그램 △원자력공학전문 프로그램 △전자전파공학전문 프로그램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환경공학전문 프로그램이다. 인증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이다.

### 입학사정관제 확대·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신설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신설, 고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제도를 실질적으로 연계한 입학사정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12년 4월 30일과 5월 1일 개최된 '경희대학교 초청 고교 교장 간담회'에서 조인원 총장은 "경희는 기초교양과 전공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개인을 넘어 더 큰 사람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인재를 기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의 입학전형은 이 같은 경희의 인재상이 반영된 결과다.

경희대학교는 2007년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부터 현직 고교 교사 및 학생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을 도입했다. 2012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을 국제캠퍼스로 확대하고, 학생부와 서류 평가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신설했다.

### 중앙도서관, 2012 대학도서관 발전기관 선정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중앙도서관이 2012년 4월 26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대학도서관 정보공유 사업에서 2012 대학도서관 발전기관으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0년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지역 협력'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표창으로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학내외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공인받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종합목록, 상호대차, 원문유통 등 학술정보 공유 및 유통의 기반이 되는 3대 사업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희대는 최근 3년간 박사학위를 연속으로 수여한 144개 대학 중 최다 득점을 기록해 학술정보 공유 및 유통에 크게 기여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구성원 대토론회 개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구성원 대토론회'가 2012년 10월 29일 오비스홀 111호에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 주제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만들기 위한 교육 방향성 모색'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사제도 개선 방향과 각 구성원의 역할'이었다. 토론회에는 대학, 교수, 학생 대표로 임성호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김양균 교수의회 사무총장, 박상호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법학 2004), 정용필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기계공학 2006)이 참여했다.

임성호 교무처장은 "학사제도는 일관성과 예측성이 요구되므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성적평가제도보다는 학점포기제도와 재수강제도부터 점차적으로 바뀌어나가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희대는 학생,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교육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 정년연장교원제도 시행

2012년부터 정년연장교원제도를 시행했다. 정년연장교원제도는 교육·연구·실천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최대 5년까

지 연장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국어국문학과 김재홍 명예교수, 영어영문학과 권택영 명예교수, 간호학과 강현숙 명예교수, 아동가족학과 조복희 명예교수, 기계공학과 박경석 명예교수, 전자·전파공학과 김인석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정년연장교원 선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만 63세가 되는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연구 실적, 교육 평가, 사회봉사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당 분야 최고 석학 수준으로 인정되는 교원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정년 전 10년간의 업적 평가에서 5년 이상 상위 25%를 차지한 경우(단, 2011년 8월~2013년 8월 정년퇴임 교원의 경우는 상위 40%), 2012년에 선정된 6명의 교원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



### 2012 미래문명원 콜로키움 개최

‘2012 미래문명원 콜로키움’이 2012년 11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경희대학교는 한국현대사연구원 설립을 앞두고, ‘인류 문명사적 시각에서 조명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현대사연구원은 남북한 현대사 연구에만 치중했던 종래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인간성(humanity)에 기초해 국제사, 인류사, 문명사의 넓은 시각으로 역사 흐름을 조망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다. 앞으로 학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역사 연구 방법과 연구원 운영 방침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역사 연구에 앞서,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권기봉 평화복지대학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실에 더 투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현대사의 왜곡 원인에 대해, 이정식 경희대학교 석학교수(Eminent Scholar) 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역사 자료 부족을 지적하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요즘 역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역사학계와 정치계가 함께 열린 자세로 역사를 연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2년

### 후마니타스칼리지 간담회



2012년 7월 13일 후마니타스칼리지 간담회가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원 총장,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과 후마니타스칼리지 소속 교수진, 김지혜(철학 2007)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장, 임송이(언론정보학 2010) 대학주보 기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상환 서울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도정일 대학장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전례 없는 새로운 교육 체제로, 2011년은 실험기, 2012년은 조정기, 2013년을 넘겨야 안정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로드맵을 소개했다. 그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성취로 많은 대학이 교양교육의 혁신 작업에 나서는 등 대학사회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학생들이 긍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대학생위원회와 독서토론클럽을 구성하는 등 대학교육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면학문화를 조성하는 학풍 변화를 꼽았다.

### 인간·세계·문명에 대한 이해 돕는 ‘이스탄불 프로젝트’



2012년 1월과 8월, ‘이스탄불(다문화 이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스탄불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문명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이다.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동계·하계 방학 기간에 실시된다.

2012학년도 하계 방학에 추진된 세 번째 프로젝트는 두 팀으로 구성된 학생이 서로 다른 국가를 탐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탐방 지역은 일본과 중국으로, 일본팀 참가자 15명은 8월 19~24일 일본 규슈 일대를 방문했다. 중국팀 참가자 17명은 8월 20~25일 중국 산둥 지역을 답사했다. 일본팀은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 탐방’을, 중국팀은 ‘동서문명의 충돌과 중국 근대화의 시련’을 주제로 각각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격전지를 방문해 양국의 근대화 과정과 인물을 살펴봤다. 주제는 중핵교과 2 『우리가 사는 세계』를 기반으로 선정됐다.

### 국제캠퍼스 기숙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2012학년도 1, 2학기 기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숙교육 프로그램은 교양 기초교육을 다지고 창의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희가 개발한 전인교육 제도다. 2008년부터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숙교육 프로그램 필수이수 과목은 ‘신입생세미나’다. 대학생으로서 첫발을 내딛은 신입생들이 학문 탐구에 필요한 기본 태도를 갖추게 하고 학습 욕구를 자극하며,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이다. 주요 내용은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한 ‘멘티 소양교육’,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Big Books 독서토론’, 독서토론 및 대학생활 전체에 대한 계획을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팀 활동’이다. ‘신입생세미나’는 ‘경희 멘토링’과 연계돼 진행됐다. 경희 멘토링은 학습능력과 지도력이 우수한 고학년 학생을 멘토로 선정, 신입생들의 소속감과 애교심을 제고하고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 제1회 학술심포지엄,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후마니타스칼리지 제1회 학술심포지엄이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2년 2월 16, 17일 개최됐다. 문학, 철학, 역사, 생태사상, 글쓰기, 사고법 등 인문학 분야의 주제 발표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문학 교육이 교양교육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며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와 적실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학계 석학 6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학생들이 여러 문학 작품을 자세하고 구체적인 태도로 읽게 함으로써 작품 속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 삶에서 도덕적·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한 숙명여대 교수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매우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쓰기 장애"를 벗어나는 일은 학문과 삶에 대한 자세를 바꾸어 자신과 사회를 혁신할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2학년도 봄학기 '공존의 정의, 공생의 윤리' 기획 특강

후마니타스칼리지가 2012학년도 봄학기 동안 '공존의 정의, 공생의 윤리'를 대주제로 다섯 차례의 기획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공존의 정의와 공생의 윤리가 살아 있어야 할 사회생태계가 빈부격차, 취업난, 비정규직,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문제들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학생들과 학계, 문화계, 사상계의 저명 인사들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2012년 5월 30일에는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이 '공생: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도정일 대학장은 "대학생활 4년 동안 '나는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자 하는가', '타인은 내게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라"고 당부한 뒤, "이 과정에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답을 찾는 과정은 인문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주문하는 한편, "인문학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문학은 결국 성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제2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제2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이 2012년 11월 6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대회의실 151호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1부 서평 및 에세이 백일장, 2부 소설가 김형경(국어국문학 1978) 동문 초청 특강,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백일장에는 서평 부문 70명, 에세이 부문 130명, 총 20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대상은 에세이 '돈과 자유, 청춘의 상관관계'를 쓴 정기린(경제학 2009) 학생에게 돌아갔다. 정기린 학생은 "그동안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업에서 익힌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작문 실력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청 특강에서 김형경 작가는 '글쓰기를 통한 치유와 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형경 작가는 치유와 성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3단계 글쓰기 방법으로 자신의 내밀한 상처에 대해 쓰기(Write your trauma), 자신의 개인사 및 가족사 쓰기(Write your history), 새롭게 이해한 자신의 역할과 소명 쓰기(Write your vision)를 제안했다.



# 연구

2012년 경희는 연구 역량의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SCI급 국제논문 게재 수가 2009년 354편에서 2012년 741편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학계가 경희의 연구 성과에 주목했다. <네이처>를 비롯, 각 학문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다. 국내 최초로 우주탐사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 경희는 '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 논문의 저자가 소속한 대학'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 세계가 주목한 경희 연구

### 김백 석학교수, <네이처>에 논문 발표

약학대학 김백 석학교수(Eminent Scholar)가 면역세포의 조절을 통한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을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 김백 교수는 체내 항바이러스 단백질(SAMHD1)이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감염시키면, 그 세포는 방어작용으로써 에이즈 바이러스가 자기증식하는 데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dNTPs)을 파괴해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는다. 논문을 통해 김백 교수는 dNTPs를 파괴하는 물질이 단백질 SAMHD1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김백 교수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이 발견됨으로써 새로운 에이즈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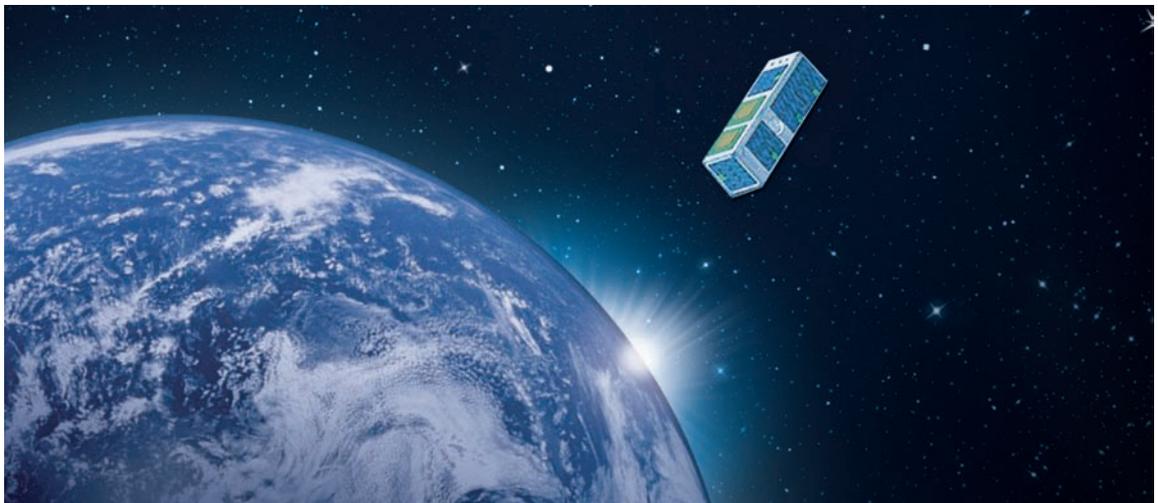
### 이동훈 교수, 국내 최초로 우주탐사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2012년 9월 14일 오전 6시 39분(한국 시간) 경희대학교는 미국 버클리대학교와 공동개발한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CINEMA) 1기’를 미국 반덴버그에서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2013년에는 시네마 2기(KHUSAT-1)와 3기(KHUSAT-2)를 러시아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희대가 초소형 인공위성(큐브셋·CubeSat)을 개발·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계획이다. 초소형 인공위성 3기가 동일 목적으로 우주공간 탐사에 활용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책임자는 일반대학원 WCU 우주탐사학과 이동훈 교수다.



시네마 2, 3기가 발사되면, 초소형 인공위성 3기는 전 방위, 전 지방시(경도)를 동시 관측해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희대는 이 관측자료를 통해 우주탐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30cm, 무게 3.1kg의 시네마는 태양이 방출하는 이온·전자·중성



자 등의 입자를 검출하고 자기장 변화를 측정한다. 우주공간에 떠도는 수많은 입자들은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며 지구로 유입되는데, 이를 추적하면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시네마를 달 탐사용으로 활용하면 달 표면 국소 지역에 존재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규명하고, 달의 기원에 관한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경희대학교는 2016년 초소형 인공위성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달 표면을 탐사한다는 구상이다.

### 장진 교수팀, 미국 전기전자학회 최고 논문상 수상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장진 교수팀이 〈미국 전기전자학회 전자소자학회지(IEEE Electron Device Letters)〉의 최고 논문상인 ‘조지 E 스미스’상을 수상했다. 장진 교수팀은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인 인듐·갈륨·아연산화물(GZO) 박막트랜지스터(TFT)에 기반을 둔 투명 플렉시블 구동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 〈미국 전기전자학회 전자소자학회지〉 2011년 2월호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비정질 인듐·갈륨·아연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 기반 투명 플렉시블 회로(Transparent Flexible Circuits Based on Amorphous-Indium-Gallium-Zinc-Oxide Thin-Film Transistors)’로, 장진 교수와 제자인 최민혁, 최재원, 말로리 마티벵가 학생이 공동 저술했다. 장진 교수팀은 휘어지는 플라스틱에도 활용 가능한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이를 작동시키는 디스플레이 회로를 만들었다. 교수팀이 개발한 디스플레이는 가볍고 던져도 깨지지 않는다. 또 유연성이 우수해 두루마리처럼 말아 휴대할 수 있다. 장진 교수팀은 3년간의 연구를 거쳐, 디스플레이 구동회로의 수명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아 상용화를 위한 비용과 수명 문제도 해결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는 2002년부터 매년 전년도 전자소자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해 최고 논문 한 편을 선정, ‘조지 E 스미스’ 상을 수여한다. 이 상은 전자소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김선국 교수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 논문 게재



전자·전파공학과 김선국 교수팀이 높은 전자이동도와 유연성을 가진 2차원 구조의 다층 이황 몰리브덴(MoS<sub>2</sub>) 기반의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로써 차세대 투명·유연 전자회로 구현이 가능해졌다. 관련 연구 결과는 2012년 8월 21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와 11월호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지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현재까지 연구된 실리콘이나 유기박막트랜지스터(OTFT)는 쉽게 깨지거나, 낮은 전자이동도 때문에 차세대 전자소자 개발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그래핀(graphene)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래핀은 금속에 가까운 도체적 특성을 지녀 전류를 자유자재로 차단할 수 없어 전자제품의 핵심인 트랜지스터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선국 교수는 그래핀과 유사한 2차원 판상구조의 나노물질인 이황화몰리브덴(MoS<sub>2</sub>)을 이용해 전기가 잘 통하고 쉽게 구부러지는 박막트랜지스터 제작에 성공, 종전의 문제를 개선했다.

### 박욱 교수팀, QR코드 마이크로 식별자 개발로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 논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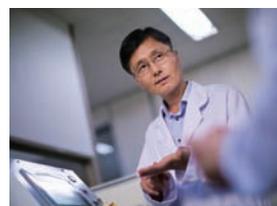
전자·전파공학과 박욱 교수 연구팀이 'QR코드 마이크로 식별자'를 개발, 위조약 제조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2012년 11월 20일자 표지논문으로 발표됐다.

박욱 교수 연구팀은 먼지만한 크기의 식별자에 기존 바코드 대비 100배 이상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 기술을 적용했다.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식별자를 약물과 함께 제조하면 포장 수준이 아닌 재료 수준에서 위조약 제조를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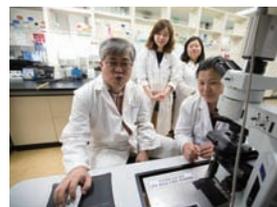
### 최석호 교수팀, 나노과학 저널 <ACS Nano>에 논문 게재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2012년 8월 12일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세계적 나노과학 저널 <ACS Nano>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최석호 교수 연구팀은 그래핀 양자점의 크기에 따른 모양과 끝자리 상태 변화 및 이에 대한 양자점의 발광에너지 의존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그래핀(graphene)은 신축성이 우수해 늘이거나 접어도 전기전도성을 잃지 않아 '꿈의 나노 물질'로 불린다. 그래핀은 휘어지는 액정화면, 태양전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석호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화학적 산화 그래핀 박리법으로 그래핀의 나노조각인 그래핀 양자점의 크기에 따라 제작하고 이를 전자투과 현미경으로 분석, 그래핀 양자점이 크기에 따라 모양과 둘레 끝자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 윤태영 교수, <Brain>에 논문 발표

우울증 치료제에 척수 손상 치료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발견한 의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 과학 학술지 <브레인(Brain)> 2012년 8월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에서 윤태영 교수는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의 플루옥세틴 성분이 척수 손상 후, 혈관·척수장벽이 파괴되는 것을 억제해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윤태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작의 플루옥세틴 성분이 세포외기질을 파괴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효소(MMP-9)의 활성도를 낮추고, 혈관·척수장벽 손상과 염증 반응을 크게 줄여 세포를 보호하고 운동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이는 뇌졸중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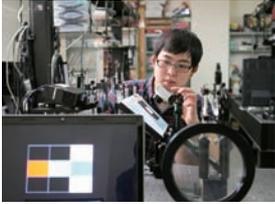
### 이용택 교수, <멤브레인 사이언스 저널> 선정 최다 인용 논문 선정

화학공학과 이용택 교수의 논문이 분리막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멤브레인 사이언스 저널(Journal of Membrane Science)>에서 지난 3년간(2009~2011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 제목은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VDF/TiO<sub>2</sub> organic-inorganic composite membranes for fouling resistance improvement'이다. 이용택 교수는 PVDF(polyvinylidene fluoride) 막에 이산화티타늄(TiO<sub>2</sub>) 나노 입자를 첨가했을 때 막의 친수성이 향상,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고, 2009년 이에 대한 논문을 <멤브레인 사이언스 저널>에 기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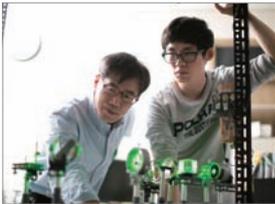
## 연구 부문 주요 성과

###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16개 사업단(팀) '우수' 이상 등급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종합평가 결과, 17개 사업단(팀) 중 16개 사업단(팀)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 연구 사업팀 △나노구조광물성연구팀 △나노·바이오응용화학사업팀 △기능성 천연바이오 소재 사업단 △나노·마이크로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변환 사업팀 △창의적 모바일 멀티미디어 사업팀 △미래 컨버전스 서비스 플랫폼 연구팀 △친환경건축물의 성능향상기술팀 △의료영상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팀 등 9개 사업단(팀)은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한의과학사업단 △고령화 사회 대비 신약소재 개발 BNT 인력양성사업단 △국제적 수준의 우수외과학자 양성사업단 △네트워크 과학에 기반한 경영학 전문연구인력양성팀 △나노입자의 설계 및 특성 제어 기술 인력양성팀 △환경정보학 산학연 인력양성사업팀 △IT 융합 건설계측 핵심인력양성팀 등 7개 사업단(팀)은 '우수' △저차원 반도체계 양자물성연구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생 및 신진 연구인력(박사 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 지원하는 고등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연구 사업팀, 교과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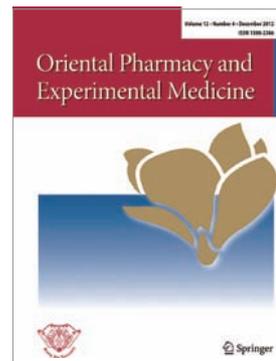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 연구 사업팀(연구책임자 최재우 교수)이 2012년 10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및 포상을 받았다. 이는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디스플레이연구사업팀은 2단계 BK21 연차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허출원·등록은 23건(국제특허등록 3건), 연구비 수주액은 23억 원에 달했다. 타 사업팀의 평균 특허출원·등록은 2건, 연구비 수주 실적은 2억 원이었다. 플라즈마디스플레이(PDP),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 중인 사업팀은 박막트랜지스터(TFT)에 기반을 둔 플렉시블(Flexible) 디스플레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깨지지 않고, 가볍고, 휘어지는 특성을 지닌 최첨단 디스플레이이다.

### 논문 인용 횟수 많은 대학 2위

2012년 6월 14일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08~2009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인용지수(IF·Impact Factor) 분석 결과, 경희대가 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 논문의 저자가 소속한 대학 2위에 올랐다. 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0% 논문의 저자가 소속한 대학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2008~2009년 KCI에 수록된 논문 17만 4,470건을 분석했다. KCI는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한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를 대상으로, 국내학술지 및 게재 논문의 학술정보와 인용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정보 서비스다. 학술논문 인용지수는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한의학연구소 영문학술지 <OPEM>, 세계 최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Scopus 등재 한의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OPEM(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이 2012년 2월 세계 최대 인용색인(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 등재됐다. OPEM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목적으로 2001년 창간된 최초의 영문 한의학 학술지다. 연간 4회 발행되며 호당 10편 가량의 논문이 발표된다. <OPEM>은 한의학과 근대 실험의학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된 <OPEM>은 2010년 미국 스프링어출판사와 공동 출판계약을 맺었으며, 온라인 투고(online submission) 및 온라인 심사 시스템(online review system)을 갖췄다. 2011년 8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국제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76개 학술지 중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는 <OPEM>이 유일하다.



### 김형민 교수팀 논문, 교과부 '기초연구 우수성과' 선정

한의과대학 김형민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기초연구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이로써 김형민 교수팀은 그동안 수행해온 교과부 연구개발사업을 3년간 추가 지원받게 됐다. 기초연구 우수성과는 매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중 이공계 기초연구·인문사회연구·국책연구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김형민 교수팀은 논문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신규 바이오마커 IL-32 발견'으로 인터루킨-32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인자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 이공계 기초연구 부문 우수성과 사례로 인증 받았다.



### '2012 경희 Fellow' 10명 선정

2012학년도 '경희 Fellow'에 10명의 교수가 임명됐다. 신규 임명된 경희 Fellow는 정경대학 경제학과 김정유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박현국 교수,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김성훈 교수,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배현수 교수, 약학대학 약학과 김동현 교수, 응용과학대학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 문과대학 철학과 최성호 교수,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유재수 교수, 이과대학 생물학과 배진우 교수, 공과대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김한기 교수다.

이번 경희 Fellow에는 시행 첫해인 2008년 임명된 김정유 교수와 김동현 교수가 경희의 연구수월성 향상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아 재임명됐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경희 Fellow에 임명된 최석호 교수는 그래핀의 광증폭 작용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논문을 포함, 국내외 SCI 등재 저널에 130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성훈 교수는 최근 3년간 SCI·SCIE에 등재돼 있는 학술지에 137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아 2010년에 이어 재임명됐다.

연구 업적을 존중하고, 학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경희 Fellow는 과거 3년간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임명 기간은 2년이며, 임명된 교원에게는 책임강의시간도 연간 6~9학점으로 조정해준다. 2008년 2명, 2009년 10명, 2010년 8명, 2011년 8명의 교수가 임명됐다.

### 이정식 석학교수, 경암학술상 수상



이정식 경희대학교 석학교수(Eminent Scholar) 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가 2012년 11월 2일 '제8회 경암학술상'을 수상했다. 경암학술상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이론 발군의 업적으로 사회공동선에 확고히 기여하고 있는 학자·예술가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기리는 상이다. 2012년에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4개 부문에서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정식 교수는 인문·사회 부문 수상자다.

이정식 교수는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Communism in Korea)』와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펴냄) 등 현대 한국 정치의 역사적 기반을 밝히는 탁월한 저서 및 논문으로 국내외 정치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아 경암학술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정식 교수의 저서와 논문들은 영어, 일본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되어 동아시아 국제 정치 연구의 고전이 되고 있다.

### 김정원 교수, 세계 최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음반 발표



기악과(피아노) 김정원 교수가 세계 최초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이하 협주곡 5번) 음반을 발표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이 음반에는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함께 수록돼 있다.

김정원 교수는 2010년 5월 서울국제음악제 폐막 공연에서 '협주곡 5번'을 연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초연이었다. '협주곡 5번' 음반 제작은 세계 최초다. 김정원 교수가 세계적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녹음한 첫 번째 음반이자 그가 경희대학교 교수로 초빙된 후 발표한 첫 음반이기도 하다. 김정원 교수는 재킷 사진을 평화의 전당에서 촬영, 경희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 박규창 교수팀, 차세대 조명기기 FEL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박규창 교수팀이 LED 패키지 전문기업인 씨티엘과 차세대 조명기기인 'FEL(Field Emission Lamp)'의 개발 및 상용화에 착수했다. 박규창 교수팀은 전자를 생성하는 전계방출(Field Emission, FE)의 핵심기술인 RAP(Resist-Assisted Patterning)라는 탄소나노튜브 전자 생성기술 개발에 성공해 국내 및 미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2012년 7월 씨티엘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FEL'은 기존의 백열등, 형광등에 비해 전력소비가 적고, LED 램프보다 단순한 제조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다. 또 밝기 및 색상 조절 능력이 탁월하고 수온과 같은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없는 친환경 조명기기다.

### 김정태 교수, 제1회 서울시 좋은빛상 대상 수상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가 '제1회 서울시 좋은빛상' 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태 교수는 빛공해에 관한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 활동을 통해 빛공해 방지법 제정에 초석을 마련하

는 등 좋은 빛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전등을 최초로 사용한 날(1887년 3월 6일)을 기념하고, 빛을 공해 없이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좋은빛상'을 제정, 2012년 첫 수상자 8명을 선정했다.

###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경희대학교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Nano·Bio Fusion Technology, 이하 RCNB) 콜로키움'이 2012년 1월 27일 개최됐다. '대화, 소통 그리고 융합: 창조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콜로키움은 설립 1년을 맞은 RCNB가 향후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연구원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RCNB 콜로키움에서 약학·생물학·인문학·화학 등 각 분야의 발제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첫 발제에서 정성현 RCNB 센터장은 '기초과학과 융합: 현재와 미래(Basic Science and Convergence: Today and Future)'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성현 센터장은 선진국 추격형인 국내 연구의 현실을 지적하고 "융합이 화두인 21세기에는 창조형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문 간 융합이 필수"라고 강조한 뒤 "융합은 각기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 간 대화와 서로 간의 공통점을 끌어내는 소통이 선행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래과학 클러스터 토론회 개최

미래과학 클러스터 토론회가 2012년 8월 7일 서울캠퍼스 이과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미래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중심 융복합 학술기관인 미래 과학 클러스터의 추진경과가 발표됐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경희대학교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3월 기획·연구를 시작한 이후 구성원 소통 과정을 통해 미래과학 클러스터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정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과 석학급 교수 영입 계획 등이 수립 중이다.



# 실천

2011년 지구사회봉사단(GSC)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 모델을 창출해온 지구사회봉사단(GSC)은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막화 방지사업 등을 전개한 GSC 몽골봉사단은 몽골 대통령 훈장을 수훈했다. 경희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국내 대학 최초로 승인 받았다. 실천인문학, 시민교육, 의료봉사 등 교육·연구·실천이 결합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지구사회봉사단(GSC)

### 지구사회봉사단 간담회

‘총장 주재 지구사회봉사단(GSC) 간담회’가 2012년 6월 11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GSC 학생기획단, UNAI ASPIRE Kyung Hee, 캄보디아 봉사단 소속 50여 명의 학생과 대학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인원 총장은 사회공헌이 내면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인지, 그것이 자신의 의식세계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는 스스로 찾아야 할 의제”라고 강조한 뒤, 조인원 총장은 “사회공헌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대학은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주체는 ‘학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수혁(경영학부 2008) 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을 예로 들었다. 유혜인(아동가족학과 2008) 학생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지구사회봉사단 합동회의

2012년 6월 26일 서울캠퍼스 공관에서 ‘총장 주재 지구사회봉사단(GSC) 합동회의’를 열고, 경희의 사회공헌과 GSC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조인원 총장은 하버드대 폴 파머 교수와 2012년 설립된 하버드의 글로벌 헬스 인스티튜트(Global Health Institute)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경희 사회공헌의 어제와 오늘을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폴 파머 교수는 평생 아프리카·남미 풍토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비정부기구



(NGO)를 설립해 자신이 연구한 치료제가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적 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한 뒤 "연구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자 개인의 몫이지만,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그의 선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구성원의 자발적 사회공헌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헬스 인스티튜트는 다양한 학문을 전공하는 120여 명의 하버드 교수진이 참여하는 기관으로, 희귀 질병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약품으로 전환해 전 세계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같은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은 경희의 봉사·실천 역사와 함께 4년 여의 준비기간을 통해 기획해온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실천·봉사 패러다임이다"라고 강조했다.

### KOICA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선정



지구사회봉사단(GSC)이 2012년 10월 12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성격에 부합하고 대학이 자체 발굴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및 인력을 활용해 현지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구사회봉사단(GSC)이 KOICA에 제안한 사업은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크로치꺼면 크나쯔응마을 농촌개발모델 개발 사업'이다.

영어와 인터넷 교육, 물 공급, 소득 증대, 마을개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빈곤과 기아 퇴치는 물론, 자생적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최종 목표는 마을 주민의 자발적 발전 의지를 고취시키고, 잘 사는 농촌 마을로 변모시켜 캄보디아 농촌 마을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 몽골봉사단 활동 및 몽골 대통령 훈장 수훈



지구사회봉사단(GSC) 몽골봉사단이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사업과 의료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대학 최초로 몽골 대통령의 훈장을 수훈했다. 2012년 7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봉사단과 주민 간 '화합의 장' 행사에서 봉사단은 몽골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수여하는 551번째 민주혁명 90주년 훈장을 전달받았다.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경희의료원 의료진 69명이 참여한 몽골봉사단은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몽골 만달고비 지역과 울란바토르에서 소통과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단은 사막화방지팀, 사막화방지 벽화팀, 의료팀(59쪽 참조), 교육·문화봉사팀 등 모두 4개 팀으로 나눠 파견됐다. 사막화방지팀은 재학생 30명으로 구성, 만달고비 사막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방문 활동, 교육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 미술대학 교수와 학생 9명은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 재학생과 함께 사막화방지 벽화팀을 이뤄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 외벽에 대평 평화 벽화 8점을 제작했다.

몽골봉사단은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사업과 의료지원 활동에 앞서 7월 6일 교육·문화봉사팀을 현지에 파견해 아동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및 문화교류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 ‘2012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

지구사회봉사단(GSC) 실천인문학센터는 ‘2012년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운영했다. 경희대학교 심화반, 강동지역자활센터, 광진 늘푸른 인문대,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10개 기관에서 강좌를 신청한 263명 중 214명이 8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쳤다. 수료식에서 강동지역자활센터 문선 씨는 “강좌를 통해 진정한 꿈과 희망을 찾게 됐다”면서 인생 최고의 선물을 얻은 것 같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노숙인,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참여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학, 철학, 역사, 예술 등을 제공하는 시민인문학 강좌다.



### 토요 아이들의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교육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토요 아이들의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을 시행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수료한 재학생들은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서울시 관악구 9개 초등학교에서 관악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독후활동을 바탕으로 한 논술, 글쓰기를 도와주는 멘토링 활동을 펼쳤다.

‘토요 아이들의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 1기는 재학생 멘토 25명, 초등학생 멘티 97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5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활동했다. 재학생 멘토 25명, 초등학생 멘티 119명으로 구성된 2기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몰래산타 페스티벌’

‘2012 경희 몰래산타 페스티벌’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펼쳐졌다. 2007년부터 시작한 ‘몰래산타’는 매년 연말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나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최대 규모인 4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총 95가구, 202명의 아동과 인연을 맺었다. ‘몰래산타’는 청량리역 역사 광장에서 ‘플래시 몹(flash mob)’을 진행한 뒤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려줬다.



## 실천 부문 주요 성과



### 국내 대학 최초, UN ECOSOC 특별협의 지위 획득

경희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이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서 인류평화에 기여해온 경희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 앞으로 경희는 유엔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특정 이슈에 대해 현장 경험을 통한 전문가 분석을 제공하고 국제적 협약에 대한 감시와 이행을 지원하는 등 유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의 핵심 기구 중 하나로 1968년부터 비정부기구(NGO)에도 '협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설립 2년 이상된 단체로 유엔의 NGO 활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협의 지위는 일반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협의 지위 △명부상 협의 지위(Roster Status) 세 가지로 나뉜다.

### Peace BAR Festival 2012 '인간, 정치, 문명' 주제로 개최

'제31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가 9월 17~18일과 21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다. 2012년 주제는 '인간, 정치, 문명(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이었다.

조인원 총장은 행사 첫날 개회식에서 "폭력 없는 평화, 삶의 기초 욕구를 충족하는 평화,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평화를 위해, 인간, 정치, 문명에 대한 지구적 성찰을 거듭해 인식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박명숙 무용학부장이 창작하고 무용학부 학생이 공연한 '물의 정거장(The Station of Water)' 기념무용제와 국제회의 첫 번째 순서로 예일대학교 이매뉴얼 윌러스턴 석좌교수 초청강연이 '문명적 전환의 정치(The Politics of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를 주제로 개최됐다. 둘째 날인 9월 18일, 국제회의의 두 번째 순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주제는 ‘지식의 구조들: 과학과 인문학의 인식론적 재융합?’이었다. 윌러스틴 석좌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정치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일고 있는 현 시점에는 단일 학문성에 기반한 통합된 사고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지구사회봉사 한미당이 ‘연민과 올림: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여정’을 주제로 열렸다.



Peace BAR Festival 2012는 9월 21일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된 ‘UNAI ASPIRE Kyung Hee Forum’으로 막을 내렸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 예방을 위한 유엔과 청년의 역할(Conflict Prevention in Northeast Asia: The Roles of the UN and the Youth)’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중·일 유엔협회가 주관하는 3국 모의유엔회의 및 청년포럼과 연계되어 진행됐다.

### 유네스코 워크캠프 파견

인종, 문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직접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구적 존엄’을 지향하는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 총 95명의 재학생을 유네스코 워크캠프(KHU-UNESCO International Workcamp)에 파견했다.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지원하는 워크캠프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대학생들이 교류·협력하면서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경희봉사단, 봉사페스티벌 개최

경희봉사단은 2012년 5월 14일부터 4일간 서울캠퍼스 청운관 일대에서 ‘제4회 경희봉사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봉사를 위해 달려가는 이들 모두의 축제’라는 주제 아래, 국제개발·다문화·아동·장애·실버(노인)·환경·생명 등 7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희봉사단원 40명과 학생 250여 명, 각종 NGO 단체 등이 참여해 소통과 나눔, 연대와 협력의 축제를 선보였다.

### 국제캠퍼스 생활관 ‘작은나눔봉사단’ 운영

국제캠퍼스 ‘작은나눔봉사단’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작은나눔봉사단은 국제캠퍼스 기숙사(생활관)자치회의 자발적 봉사단체로, 학생들의 개별적 봉사활동을 좀 더 계획적·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1년 창단했다. 작은나눔봉사단은 기숙사 내 봉사문화를 정착시켜 새로운 생활관 봉사문화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2012년에는 15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 UN·국제기구 인턴십 학생 선발

2012년 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학생 8명을 선발했다. 선발학생은 2012년 9월부터 UNDP, UN DESA, FAO, UNESCO, SEAMEO, CIVICUS, CoNGO 등에서 2~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지원 자격 요건이 대학원생 이상으로 강화됐다.

# 의과학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문화세계 창조'와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고 21세기 의료기관의 창조적 미래를 모색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경희는 의·치·한 의대 3개 대학 모두가 MRC 사업에 선정된 국내 최초의 대학이 됐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치료 품질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병원평가에서 의과학 경희의 이름을 높였다.

## 의료기관

### 임영진 교수, 제15대 경희의료원장 취임

2012년 3월 26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제15대 경희의료원장 취임식이 개최됐다. 임영진 신임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의 의지와 열정,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하다”며, “경희 가족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단결해 하나가 될 때 경희의료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감마나이프 수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임영진 신임 의료원장은 1982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감마나이프학회 회장,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총무이사, 세계신경외과학회 제정위원장, 대한방사선수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2012년 의료기관 연찬회 '대전환, 경희의 미래 의료의 미래'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구성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2012년 3월 17일 '대전환, 경희의 미래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의료기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재정사업위원장, 미래정책원장,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한의대학장 등 260여 명은 2010년 선포한 '비전 2020'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1세기 의료기관의 창조적 미래를 모색했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 의료기관은 ‘문화세계의 창조’, ‘인류의 건강증진’이라는 공적인 목표를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변화된 경희의 위상을 언급한 뒤 “명문 의료기관의 실현을 위해 의료기관의 공적인 설립 취지와 탁월성·진정성을 견지하면서 의료기관 내, 대학과 의료기관 간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으로 더 멋진 경희 의료기관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연찬회는 △비전 2020의 추진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자율운영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진료와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력을 제고할 것인가 등 4개의 화두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어 '비전 2020' 달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과 병원별 사업계획, 이에 따른 진료·연구·경영·재정 등 분야별 추진계획, 거버넌스 개편 계획, 성과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다. 연찬회는 조인원 총장의 총평에 이어 구성원과의 대화의 자리인 '대 전환, 공감과 창조'로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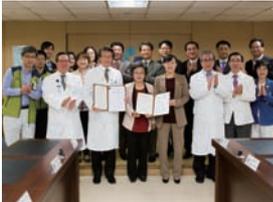
### 박문서 교수, 제3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취임



제3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취임식이 2012년 4월 2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열렸다. 취임사에서 박문서 신임 병원장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압축성장의 5년을 넘어, 지속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병원별 자율운영체제와 경희대학교만의 강점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문서 신임 병원장은 1978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접착제를 이용한 귀 수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난청 및 이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자가 혈액 접착제를 이용한 수술 부문에서 세계 최대 시술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다.

### 경희가족 정신으로 이뤄낸 노사화합



경희의료원 노사가 2012년 10월 12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2012년 단체교섭에서 사립대 의료원 최초의 자율 타결이었다. 앞서 경희의료원 노사는 9월 20일, 파업 3시간 전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노조는 조합원 투표로 잠정합의안을 인준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사가 경희의료원 발전과 보건의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2013년 단체교섭 방법에 대한 논의 구조에 참여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희의료원 임영진 의료원장은 “이번 교섭 과정을 통해 경희의 가족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면서 “노조의 양보와 배려, 의료원에 대한 사랑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조은숙 지부장은 “의료원의 소통 노력과 구성원에 대한 존중심, 발전 의지를 확인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이번 단체협약 자율 타결은 노사 간 신뢰의 결과”라고 말했다.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치료품질 소비자 만족도 1위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한국소비자원의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치료품질 부문 1위에 올랐다. 경희대한방병원은 치료품질 만족도 부문에서 7점 만점에 6.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동국대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동서한방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방의료서비스 치료품질은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소비자 만족도가 측정됐다. 경희대한방병원은 검진 및 치료 효과성, 검진 및 진료 비용 적정성, 약제비용 적정성, 약제 신뢰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헬스조선 메디컬·건강산업 대상 수상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이 '2012 헬스조선 메디컬·건강산업 대상'에서 치과외서비스 부문 '메디컬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연구개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료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줬는지를 심사의 양대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내 치과외술 발전을 선도한 점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메디컬 대상 심사 기준은 신의술 개발, 임상의료 서비스 수준, 학술 활동, 사회공헌 활동 등이었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2012년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 유공 단체'로 선정돼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뇌사 기증자 발굴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KOST)로부터 인체조직기증 의뢰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상을 2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희망나눔 토크 - 암을 넘어선 삶(Life Beyond Cancer) 개최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가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한 '희망나눔 토크 - 암을 넘어선 삶(Life Beyond Cancer)'이 2012년 10월 16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치유(Healing)', '희망(Hope)', '비전(Vision)' 3가지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을 주제로 한 3부에서는 이상적인 암센터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암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를 지낸 김의신 박사는 "암센터는 치료를 잘하는 것은 물론, 환자가 희망을 갖게 해 기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인 수녀는 대장암과 투병하며 쓴 시를 낭독, 환자는 물론 마음의 상처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 의과학 부문 주요 성과

### 국내 최초로 의·치·한의대 3개 대학에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사업 선정



경희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의·치·한의대 3개 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 (Medical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MRC)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07년 한의과대학 암 예방소재 개발 연구센터(센터장 김성훈 교수), 2011년 의학전문대학원 활성산소 연구센터(센터장 김성수 교수)에 이어 2012년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센터(센터장 김은철 교수)가 MRC에 선정됐다.

MRC는 의·치·한의대의 기초의학교실을 중심으로 기초의과학 부문 거점연구조직을 육성, 생명 공학에 활용 가능한 지식과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2012년 8월 29일 MRC 사업에 최종 선정된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센터는 2019년까지 7년간 연구비 약 69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센터는 MRC 사업을 통해 치아·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통합 연구, 즉 치아와 잇몸·잇몸뼈(치조골) 등 치주조직이 손상되는 원인과 과정을 파악해 치료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치아·치주조직 손상과 면역 기전을 밝혀 손상 차단과 재생 촉진 제어 표적 분자를 발굴하면, 새로운 재생 및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장인 김은철 교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장기간 공동연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기업 등이 서로 연계해 치의학의 핵심 연구 분야인 치아와 치주조직 손상·재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거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치의학전문대학원, 종합진료실 교육환경 개선 기념식 개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종합진료실 교육환경 개선 기념식이 2012년 9월 7일 치과병원 3층 종합진료실 앞에서 개최됐다. 치과용 유닛체어 24대, 덴탈 캐비닛 등 종합진료실 내 교육기자재의 전면 교체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기념행사로, 조인원 총장, 유병철 의무부총장, 동문, 교수,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치전원은 종합진료실 교육환경 개선에 앞서 교육기자재 동문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9월 7일까지 고철수(치과대 1978), 고광수(치과대 1991) 등 11명의 동문이 기부에 참여해 1억 150만 원이 모금됐고, 일부는 유닛체어 교체에 사용됐다.

### 이길연 교수팀, 대한임상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경희대학교병원(경희의료원) 이길연 교수팀이 2012년 3월 10일 2012년 대한임상종양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대장암 세포주에서 항암제 유도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 과발현 현상’ 논문으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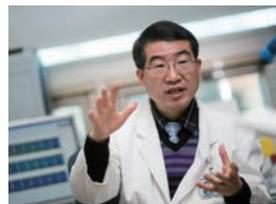
이길연 교수팀은 논문을 통해 “항암제를 한 가지만 저농도로 사용할 경우 대장암 세포주에서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가 오히려 과발현하는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현상은 항암제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할 경우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 장건호 교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새로운 측정 방법 개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장건호 교수의 논문이 미국의 <의학 물리(Medical Physics)> 2012년 10월호에 게재되고, 연구 결과가 표지사진으로 선정됐다. 논문은 '확산자기공명영상(dMRI, 확산MRI) 기법을 이용한 뇌의 철성분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이다. 장건호 교수는 "인지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된 환자의 뇌에서 철분 집착이 발견된다"면서, "두 환자군과 정상 노인군의 뇌를 '확산MRI'로 찍은 결과, 철분 집착에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장건호 교수는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격도 종전 검사비의 절반 가격이라 비교적 자주 뇌 검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방법을 통해 경도 인지기능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도 인지기능이상을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건호 교수팀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MRI 개발과 임상 적용 과제에 선정, 5년 동안 연간 5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 박성욱 교수팀, 침·봉독약침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 최초 입증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팀이 최초로 침과 봉독약침(벌침)이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 파킨슨병의 한방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연구 결과는 2012년 9월, 뇌신경 분야의 학술지 <Parkinsonism and Related Disorders>에 게재됐다.

파킨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이면서 운동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침과 봉독약침 치료군 집단에서 운동기능이 개선됐고, 봉독약침 치료군은 일상생활기능, 균형잡기, 보행 속도가 호전됐다. 또 이번 연구에서 침이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선영 교수, 일본혈액학회 '2012 Travel Awardee' 선정

경희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선영 교수가 2012년 8월 2일, 일본혈액학회가 학술 업적이 높은 젊은 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2012 Travel Awardee'로 선정됐다. 조선영 교수는 그동안 임상화학 분야의 SCI 논문을 다수 발표해왔으며 2010년부터 3년 연속 관련 학술대회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학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선영 교수는 2012년 6월 제4회 미래의학자상 수상자에 선정된 바 있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사 3인, 국제학술대회 석권

2012년 2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한국·대만·일본·싱가포르 국제방사선사학술대회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박명현·정유찬·김재열 방사선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석권했다. 13편의 포스터 전시와 6편의 국제논문, CT & MRI, Angio 각 10편, 일반 촬영 및 투시조영 8편 등 약 40여 편이 소개된 학술대회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총 5편의 논문과 3편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 배현수 교수팀, 봉독의 파킨슨병 치료기전 발견



한외과대학 배현수 교수팀이 봉독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를 규명해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 <뇌행동면역학> 2012년 11월호에 논문을 게재했다. 배현수 교수팀은 면역세포 중 하나인 조절T세포가 파킨슨병의 발생과 악화를 감소시킨다는 점에 착안, 조절T세포를 증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200여 종의 한약재를 검사했다. 그 결과, 꿀벌에서 분리된 봉독이 조절T세포를 증강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조절T세포를 제거한 동물은 봉독의 치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해 조절T세포와 봉독의 관련성도 입증했다.

### 송미연 교수팀, 만성요통 침 치료 효과 입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연 교수팀이 만성요통의 침 치료가 환자의 불편함과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SPINE> 2012년 9월호에 게재됐다.

송미연 교수팀은 치료군과 대조군, 두 집단으로 나누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치료군 환자는 개인에게 맞는 혈(穴) 자리에 침을 맞았고, 대조군 환자는 거짓 침(피부를 뚫지 않는 침, sham acupuncture)을 시술받았다. 그 결과, 치료군에서 요통으로 인한 불편함을 나타내는 수치와 통증의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대조군보다 감소했다. 이는 치료 종료 시점뿐 아니라, 치료 후 3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철훈 교수팀, 신개념 약물 전달 복합체 개발

동서외과학과 강철훈 교수팀이 고려대 화학과 김종승 교수팀과 공동으로 신개념 약물 전달 복합체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지(JACS)> 2012년 8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약물 전달 복합체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전달 과정까지 직접 모니터링한다는 장점이 있다.



## 국내외 의료봉사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국 연벤(延邊) 의료봉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2012년 8월 15일부터 5일간 중국 연벤 연지(延吉) 제2인민병원에서 조선족자치주 주민 1,018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2011년 연벤 의료봉사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포함, 정형외과(엉덩이관절, 무릎관절, 척추), 내과(류마티스내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등 총 7개 과목의 의료활동이 이뤄졌다. 의료진은 총 3,443건의 진료와 함께 인공 엉덩이관절 수술, 인공 무릎관절 수술, 척추 수술 등 6건의 수술을 진행했다. 연벤 의료봉사를 진행한 '희망사회만들기' 의료봉사단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롯데복지재단이 대학병원과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일환으로 구성한 단체다.



### 경희의료원, 몽골 울란바토르 의료봉사

경희의료원 의료봉사단이 2012년 7월 25~30일 몽골 울란바토르 칭겔테이국립병원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경희의료원 직원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등 19명이 참여한 의료봉사단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한방, 치과 진료와 영상의학과 초음파 검사, 임상 검사 등을 제공했다. 총 1,200여 명의 현지인이 혜택을 받았다. 영상의학과 최우석 교수는 몽골 의료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 차이하 엘벡도르지 대통령 훈장을 수훈했다. 몽골 의료봉사는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의 몽골 봉사활동과 함께 이뤄졌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대상 무료진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희망사회만들기 의료봉사단이 12월 15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고향마을에서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정형외과(엉덩이관절, 무릎관절, 척추), 내과, 류마티스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등 9개 클리닉을 개설해 907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골밀도, 비만도, 당뇨, 청력, 혈액, 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 11개 검사, 처치는 2,949건에 달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료진, 간호, 행정 관계자 등 52명과 롯데마트·롯데백화점 직원 23명, 안산 사할린영주 귀국동포사업소 3명 등 총 78명이 참여했다.



###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사랑과 희망 나누기' 의료봉사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이 2012년 5월 12일 김포시 양촌읍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경희의료원 의료진 34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협회와 함께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외과, 치과 등 진료와 물리치료, 종합한방치료, 임상검사, X-ray 검사 등을 제공했다. 11월 3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을 방문해 무료 진료와 검사를 실시했다. 1997년 3월 창단된 한마음봉사단은 80회 이상의 의료봉사 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헌혈운동, 도서 기증, 극빈자 수술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말진료, 수재민 의약품 전달, 태안 기름수거 봉사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KYUNG HEE UNIVERSITY

# 세계와 경희





# 국제화

경희는 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1위를 차지했다. 경희는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국제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일본 도쿄대학교 등 10개국, 16개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 경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은 7개국, 449개교로 늘어났다. 2012년 처음 시행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 세계적 석학을 초청, 국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는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은 참가 학생 수와 참가국이 증가하며 경희를 대표하는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 해외 파견 및 교류 협력

### 해외 16개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 체결

2012년 한 해 동안 일본 도쿄대학, 미국 뉴욕주립대 오스웨고, 핀란드 투르크대학 등 10개국, 16개교와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2012년 12월까지 71개국, 449개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개교 당시부터 국제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해온 경희대학교는 매년 해외 대학의 관계자를 초청,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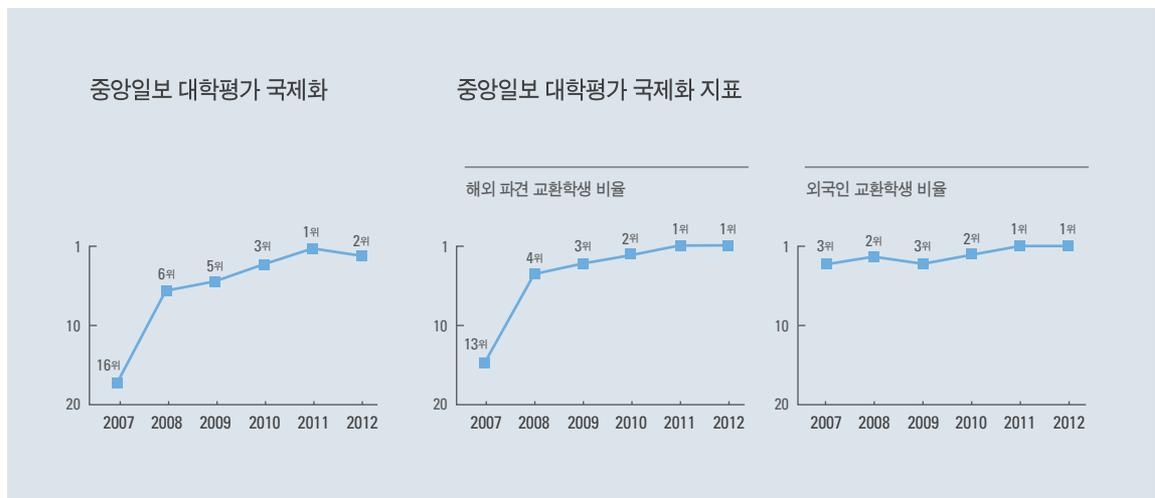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 '우수 인증대학' 선정

경희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은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으로서, 우수 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평가된 대학이다. 2012년에 처음 실시된 인증제 평가는 전국 347개 대학(4년제 201개, 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정량평가 항목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 총원 수와 총원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등 8개 지표로 구성됐다. 경희대학교는 인증제 평가에서 해외 파견 학생 비율과 국내 유치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 총원 비율 부문에서 상위 5%,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은 상위 10%로 평가됐다. 우수 인증대학 인증은 3년간 유지되지만, 시행 첫해는 2012년에는 시범인증으로 인증기간이 1년간 부여된다.

###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경희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캠퍼스 국제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2 중앙일보 대





학평가'의 국제화 부문 세부지표에서 경희대학교는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전체 재학생의 6.71%)과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12.75%)에서 1위에 올랐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대학 간 교류협정을 통해 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 학생을 파견 및 초청하는 제도다. 2011년 아시아, 유럽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으로 파견 국가를 확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칠레, 에콰도르 등 다양한 지역의 자매대학 학생을 초청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럽 초청 교환학생을 확보했다.

### 2012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 개최

2012년 7월 2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2012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이하 Global Collaborative)'이 개최됐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아시아 문명(Global Governance and East Asian Civilization)', 국제캠퍼스에서는 '녹색 지구를 향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s Towards Green Planet)'을 주제로 7월 26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서울캠퍼스의 총 수강 인원은 385명으로, 국내 학생 150명, 외국 학생 235명(총 29개국 31개교)이, 국제캠퍼스의 경우 총 수강 인원 135명 중 국내 학생 77명, 외국 학생 58명(총 33개국 16개교)이 참가했다. 2010년부터 중동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우수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강의 외에도 태권도 수업, 전주 한옥마을 방문, DMZ 투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굿네이버스 등 국내 주요 NGO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Civic Service' 프로그램, 한국과 일본, 중국 영화 시청 및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국영화의 밤' 등 다채로운 특별 과외활동도 진행됐다.

'Global Collaborative'는 지난 200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처음 시작됐으며, 모든 강의는 영어로 제공된다.



### 단과대학 자체 해외 파견 프로그램 진행

단과대학별로 학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공 연수와 인턴십 등의 형태로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단과대학 자체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9개 단과대학에서 총 450명의 학생들이 해외 대학 학술 탐방과 전공 연수 혜택을 누렸다. 이는 2011년 247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경경대학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University of Vienna), 이과대학은 대만 군산대학교와 중국 난징대학교, 간호과학대학은 중국 시안의과대학 간호학원, 호텔관광대학은 일본 그린랜드 리조트와 홋카이도그린랜드, 중국 마카오국립대학에 학생들을 파견했다. 문과대학은 미국 퀸즈칼리지(Queens College),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대만 국립성공대학 및 담강대학, 생활과학대학은 말레이시아 국립말라야대학(University of Malaya), 프랑스 파리 패션스쿨, 법과대학은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의 교과 과정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경영대학은 홍콩 침례대학(Hong Kong Baptist University), 미국 노스이스턴일리노이대학교(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 한의과대학은 중국 텐진중의약대학과 베이징 중의약대학, 대만 중국의학대학에 학생들을 파견하는 등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 특별 파견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특별 파견 교환학생제도(Study Abroad)를 통해 재학생의 해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영미권 및 중국어권 국가에 대한 학생 파견이 확대됐다. 서울과 국제캠퍼스 통합으로 1학기에 2개국 21명, 2학기에 2개국 22명의 영어권 특별 교환학생을 선발해 미국과 영국 자매대학에 파견했다. 파견 학생에게는 특별교환학생 장학사업을 통해 1인당 2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중국어권은 1학기에 2명을 선발했으며, 장학금은 1인당 220만 원이 지급됐다. 파견 학생은 한 학기 동안 학술교류 및 협정을 맺은 해외 자매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수강하고, 귀국 후 학점을 인정받아 정규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 Global Collaborative Abroad

경희대학교는 전공 심화를 위한 차별화된 국제화 교육과정으로 Global Collaborative Abroad (해외 집중 전공 연수)를 시행했다.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편성 및 운영을 통해 교육의 실질적 국제화를 제고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해외 대학에서 동일·유사 전공의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연수 과정은 전공 연수와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는 7+1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2012년에는 간호학과에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캠퍼스에 10명, 응용과학대학에서 호주 퀸즈랜드대학교에 20명,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서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40명을 파견하는 등 12개 학과에서 7개국 12개교에 246명(7+1 프로그램: 4개 학과 41명, 전공 연수 프로그램: 8개 학과 205명)을 파견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학생의 K-CESA(대학생 핵심역량 진단검사) 글로벌 역량 지수가 5% 이상 향상됐다.

## 국제화 부문 주요 성과

### 세계 문화 체험의 장 '경희 외국인 한마당'



'경희 외국인 한마당'이 2012년 5월 16일 임간교실에서 개최됐다. 1997년에 시작해 16회를 맞이한 경희 외국인 한마당에는 국제교육원 한국어 재학생을 비롯해 일본공과대 파견 예비 과정 학생, 경희대 소속 내·외국인 교원 등 900여 명이 참가했다.

1부 세계 음식 축제에서는 일본, 리투아니아,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등 12개국, 12개 팀, 60여 명의 외국인 재학생이 참여해 자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선보였다. 2부 국제 문화 축제에서는 인도, 프랑스, 케냐, 멕시코, 브루나이 등 12개국 참가자들이 자국의 전통 노래와 춤, K-POP 등을 공연했다.

### 제15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제15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2012년 5월 17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K-POP과 한국 문화 체험'을 주제로 열렸다. 역대 최대인 37개국 1,200여 명의 외국인이 지원했으며, 19개국 21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K-POP을 활용한 한국어 공부법, K-POP을 통해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된 사연, K-POP을 통해 갖게 된 꿈 등 다양한 사연을 발표했다.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지금까지 70개국, 6,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 한·태국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과 태국의 수교 54주년을 맞아 2012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운관에서 제8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제교육원이 태국 치앙마이 라차팻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안정성에 대한 아시아 지식 네트워크'를 주제로 진행됐다. Kittipong Na Ranong 주한 태국 대사와 정해문 한·아세아센터 사무총장을 포함,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들과 GMS(Great Mekong Sub-region) 국가의 전문가 180여 명이 참가해 학문적, 문화적 연대 증진과 국제 관계 이해를 도모했다.

### Fun Korean Lesson Trip 운영

2012년 7월부터 한국관광공사 위탁사업으로 'Fun Korean Lesson Trip'을 4차례 운영했다. 'Fun Korean Lesson Trip'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지만 장기 연수나 유학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을 위한 언어문화 통합 프로그램이다. 4차례의 프로그램에 77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외국인 학생들은 일주일간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이용한 한국어 수업과 한국 가정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한국어 도우미 제도를 통해 참여한 경희대학교 재학생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 문화동반자 한국어 과정 운영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13개 기관의 전문 연수를 받는 외국인 문화 동반자 51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국어 특별 과정을 운영했다. 한국어 외에도 노래와 명절, 전통놀이 등 한국 문화에 관한 수업이 병행됐다. 문화동반자 한국어 과정은 각 나라에서 선발된 문화전문가들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자신의 전문 분야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2012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간 340여 명의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도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강연, 문화공연, 주제가 있는 테마 체험, 그룹선택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농가 민박과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모국 연수는 재외동포재단이 향후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하나다.



###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2012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재외한글학교 교사와 임원진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북미, 아시아, 유럽, 중동 등에서 총 199명의 교사와 임원진을 초청해 한국어 교육 방법과 한국 역사, 문화 특강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한글학교 운영 사례 소개를 통한 발전 방안을 토의했다. 연수를 통해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국어 및 한국어·문화 교육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한글학교 운영진의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 국제교육원 재학생, 대외 행사 참가 및 수상

국제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다양한 대외 행사에 참가해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를 강화하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2012년 10월 8일 한글날 기념 '외국인 한글 글 쓰기 대회'에서 왕울(중국)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고 24명의 재학생이 은상, 장려상 등을 석권했다. 10월 9일 '제2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에서는 장안기(중국) 학생이 수필 부문 장원에 오르는 등 10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0월 12일에는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서 대니(방글라데시) 학생 외 4명이 편집상을 수상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경희대학교는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998년부터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13개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22명을 초청했다. 연수생들은 한국과 자국 문화를 비교하는 논문을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수 후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과의 교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KYUNG HEE UNIVERSITY

# 창조와 도약





# 행정 · 복지 · 인프라

전문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 일환으로 직원연구년제를 본격 시행했다. 그룹웨어 시스템을 도입,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경희는 2012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사립대학 부문 3위를 차지했다.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을 리모델링해 각종 편의시설을 신설하고 음식의 맛과 질 향상을 꾀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 학생 13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개교 70주년인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신축사업에 착수했다.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해 대내외 외국인 구성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했으며,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학의 주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시했다.

## 행정

### 국가고객만족도(NCSI) 3위

‘2012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사립대학교 부문에서 경희대학교가 3위에 올랐다. 평가 점수는 71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70점대를 유지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만족도제고 기획위원회와 단과대학 중심의 자체 만족도위원회,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만족도제고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교과학습, 실험 실습, 문화홍보, 국제화 등 8대 선결과제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64개 산업, 288개 기업(대학)과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소비자 77,149명을 대상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를 조사, 발표했다.

### 교직원연찬회 ‘미래대학과 전문행정 - 성찰과 도전’ 개최

2012학년도 교직원연찬회 ‘Embrace 2012’가 11월 23~24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됐다.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서울·국제캠퍼스 직원 3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찬회 주제는 ‘미래대학과 전문행정 - 성찰과 도전’이었다.

조인원 총장은 “학술활동의 궁극적 가치는 사람”이라는 설립자의 말씀처럼, 경희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학발전의 기틀을 다져왔다”고 말한 뒤 “대학행정 역시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전제 아래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체의 창조적인 역동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찬회 참석자들은 대학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구성원이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해나갈 때 미래대학과 전문행정이 실현될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소통을 통한 동기부여’가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들간의 연찬회 총평에서 조인원 총장은 “소통 플랫폼을 정례화하고, 행정부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직원연구년제 본격 시행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 일환으로 직원연구년제가 본격 시행됐다. 직원연구년제는 일정 기간 대학에 재직한 직원에게 연구기간을 부여, 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희대학교 최초 연구직원은 2011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연구년을 다녀온 성금캠페인통합사무국 김동환 행정계장이다. 그는 연구년 기간 동안 기금 모금과 국제 자선활동을 중심으로 연구, 미국의 대학과 비영리기관의 기금 모금 방식을 살펴보고 경희대의 상황에 맞춰 기획과 시뮬레이션 과제 등을 수행했다.

###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



2012년 3월 2일 그룹웨어 시스템(<http://gw.khu.ac.kr>)을 도입했다. 그룹웨어란 조직 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전 구성원의 서류 작성 및 결재, 문서 보관 등 다양한 업무를 종합 처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종합관리시스템이다.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물리적 문서 보관철 대신 전자결재 문서함을 통한 문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정부문서유동시스템 사용으로 문서의 전자유동도 가능해졌다. 표준화된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처리도 가능해졌다.

### 기획위원회사무국, '미래정책원'으로 개편



기획위원회사무국이 미래정책원으로 개편됐다. 미래정책원은 대학의 위상을 강화할 중장기 전략 기획부터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을 보다 거시적·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미래정책원은 전략팀, 제도·인재팀, 평가팀으로 구성됐다. 전략팀은 메가트렌드와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세계적 명문대학의 정책을 조사·분석해 정책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경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제도·인재팀은 거버넌스와 인적자원을 개발해 수립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팀은 중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대응에 나선다. 대학 평가 등 외부평가뿐 아니라 O&P 리뷰 등 내부평가도 평가팀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 대학·의료기관 통합민원부서 '옴부즈팀' 신설



경희대학교와 의료기관의 민원처리 주관부서를 단일화해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하는 옴부즈팀이 신설됐다. 옴부즈팀은 민원의 처리·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행정 서비스를 통해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민원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팀 또는 민원을 전달받은 부서는 민원을 접수·이첩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민원 접수는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ombuds.khu.ac.kr](http://ombuds.khu.ac.kr))를 통해 가능하다.

### 경희 공생(共生) 포럼 개최

'경희 공생(共生) 포럼'이 3차에 걸쳐 개최됐다. 공생 포럼은 자기 성찰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미래대학 건설을 위한 가치를 탐색하고, 2010년 구성된 전문행정복지위원회, 2011년 체결된 미래협약 등에서 제시된 '공생(Convivial)'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복지

### 청운관·공학관 식당 리모델링

청운관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이 2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2012년 3월 5일 재개장했다. 우선 식당 코너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한식'과, '덮밥·비빔밥·볶음밥', 철판과 독배기 요리를 제공하는 '특식·직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을 위해 세계 요리를 선보이는 '양식·세계', '분식·면류' 등이다. 가격대는 2,300~3,500원으로 종전과 비슷하지만, 가격 대비 재료원가 비중을 35%에서 60%로 늘려 품질 향상을 꾀했다. 식당 내부에는 식사를 위한 배식대와 테이블 이외에도 5개의 열람실, 카페, 소규모 무대 그리고 중정을 이용한 외부 테라스가 배치됐다. 이로써 식당뿐 아니라, 휴식공간, 면학공간, 소모임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9월 17일에는 국제캠퍼스 공학관 학생식당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청운관 식당과 마찬가지로 복합 식음공간 및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식약청 HACCP 기준 준수, 5일 이내 도정된 쌀과 국내산 김치 사용, 가공품 배제 등으로 식자재 품질 향상은 물론, 음식의 맛과 제공되는 양이 늘어났다. 또한 학내식당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 이전까지 외부업체에 위탁한 청운관·공학관 식당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생, 131명 배출

2012년 11월 9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증서 전달식'이 열렸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선배에게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가 '훗날 선배가 되어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경희의 기부문화 전통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이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 매그놀리아 스토리의 첫 장학생 44명을 배출한 데 이어, 2012년 131명(서울 74명, 국제 5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규모 역시 3,906만 원에서 1억 2,829만 8,000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조인원 총장은 "우리 모두는 개인이면서도 경희 공동체 구성원이며, 나아가 사회와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하고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선배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이 담긴 나눔의 문화"라고 소개한 뒤, 장학금을 받는 후배들도 대학에 다니면서 또는 사회에 진출해 아름다운 가치와 문화를 가꿔나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 201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 서울캠퍼스 '최우수'·국제캠퍼스 '우수'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서울캠퍼스가 '최우수', 국제캠퍼스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실시한 전국 331개 4년제 및 전문대학의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를 2012년 2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3개 영역에 걸쳐 심사가 이뤄졌다.

### 국제캠퍼스, 교직원 Health Care Program 운영

국제캠퍼스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교직원 Health Car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멤버십카드 중 하나로 전국 헬스 관련 제휴시설을 이용하고, 동시에 제휴가맹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누리는 직장인 단체 할인 프로그램이다. 국제캠퍼스는 웰빙클럽멤버스(SWC) 업체를 선정해 2012년 1월 1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 정경대학, 장애학생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정경대학에 설치돼 2012년 3월 2일부터 운영 중이다. 지체장애 2급인 한수인(행정학 2011) 학생을 위해서다. 한수인 학생은 2011년 입학사정관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경희대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행정학과가 있는 정경대학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한수인 학생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입학 첫 해에는 학교 측의 배려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청운관에서 전공 수업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매 학기 다른 건물에서 전공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소속 단과대학에서 전공수업을 받기 원하는 한수인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고자 2011년 10월 정경대학 엘리베이터 설치를 결정했다.



## 인프라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신축사업 본격 추진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이 개교 70주년인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들어갔다. 서울캠퍼스는 2012년 10월 22일 중앙도서관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치와 비전 수립, 성금 모금 등 정책·재정·건축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소통과 공생까지 창출'이라는 경희의 철학을 반영, 모든 학문 분야의 다양한 학술자원 서비스를 통해 학문 간 융복합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신축규모는 34,000㎡로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중앙도서관은 앞으로 7년 안에 7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신축기금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액기부, 기업의 고액기부, 대학의 대응자금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새 단장한 영문 홈페이지 오픈

경희대학교 영문 홈페이지([www.khu.ac.kr/eng](http://www.khu.ac.kr/eng))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개편, 2012년 5월 29일 오픈됐다. 새 영문 홈페이지는 외국인 학생과 교원, 해외 방문자 등 대내외 외국인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 대학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콘텐츠와 뉴스, 사진·동영상 등을 강화했다.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예술적 심미성, 정보 접근성,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고, 웹 환경을 고려한 사용자 편의성을 보완했다.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대학 구성원의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서울: <http://khis.khu.ac.kr>, 국제: <http://kulis.khu.ac.kr>)를 개편했다.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익스플로러·크롬·파이어폭스 등 모든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모바일웹으로 접속해 로그인한 후, 학술자료의 원문도 일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에서 구독 중인 전자저널과 학술논문 등 국내외 전자자원의 통합검색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경희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서비스 오픈

경희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이하 스마트캠퍼스 앱) 서비스가 2012년 11월 26일 오픈됐다. 스마트캠퍼스 앱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학의 주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다. △대학 소개 △커뮤니티- 공지사항, e민원, 자유게시판, 생활공간 △중앙도서관 - 소장 자료 검색, 대출 예약·조회, 열람실 좌석 조회, e-Book △학사행정 - 수강신청, 성적조회, 강의 시간표 △취업정보 △그룹웨어 △이메일 △대학입학 △경희 SNS △캠퍼스라이프 - 버스 도착시간 조회, 무선랜 ID 신청, IP 신청, 식단 안내 등 대학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학문화

경희의 '가지 않은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연찬회와 워크숍을 예년보다 더 활발하게 개최했다.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자율운영제도가 정착된 결과,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경희의 미래를 위한 성찰과 토론이 이뤄졌다.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화합'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 대학발전을 위한 기부문화가 확산됐다. 교수와 동문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전시회, 음악회 등 수준 높은 예술문화 활동이 이어졌다. 경희가족 송년회 'Magnolia 2012'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열정과 의지를 확인했다.

## 목련회의·목련예술제

### ‘학문과 평화의 담대한 비상’ 주제로 12월 21일 개최

‘Magnolia 2012’가 12월 21일 경희 구성원,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캠 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Magnolia는 경희가 이뤄낸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대 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는 송년 모임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학문과 평화의 담대한 비상’이라는 주제 아래 1부 목련회의, 2부 목련예술제를 진행했다.

인사말에서 조인원 총장은 “지난 5년 동안 경희는 세계적인 명문의 조건,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모색하며 ‘학술과 평화’의 전통을 강화했다”고 말한 뒤, “600여 명의 교수진이 경희에 새 로 합류해 학술의 미래를 열고, 학술의 공적 실천도 창조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학술과 실천의 결합은 경희의 지향이자 미래대학의 또 다른 가치일 것”이라고 전했다.

목련회의에서는 경희가 이룬 담대한 비상을 Review 2012 영상을 통해 돌아보고,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해 공헌한 구성원에게 수여하는 목련상을 시상 했다. 2012년에는 교육·연구·실천 세 부문 중 연구 부문에서 대학원 WCU 우주탐사학과 이동훈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동훈 교수는 2012년 9월 국내 최초로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 용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과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발표에 이어, ‘경희의 미래에 보내는 설립자 메시지’ 원본이 공개됐다. ‘미래메시지’에 담긴 두 가지 화두는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였다. 개교 15주년이던 1964년, 개교 50주년, 100주년의 세계, 한국사회의 변화상, 경희학원의 성장 등 3개 주제의 37개 질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Magnolia 2012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경희 구성원 모두의 상상력, 창조성, 도전정신이 응축된 목련예술제로 마무리됐다.



##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

###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가지 않은 길'



2012년 3월 8~9일 강원도 양양에서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개최됐다. '가지 않은 길(The Road Ahead, Empowering Global Eminence)'을 주제로 1박 2일 동안 진행된 연찬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의 바탕 위에서, 경희가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자리였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 '창조의 여정 - 미래대학의 길'을 통해 "현 단계에서 우리가 만들 학문적 수월성은 대가(大家), 석학(碩學), 거장(巨匠)을 존중하는 양심과 긍지를 만들고, 우리 학생과 사회가 이를 존경하는 대학문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의 공적 실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대학행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좀 더 강화된 자율운영체제 하에서 전통 명문대학의 길, 창조와 변화를 통한 새로운 명문대학의 길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 2012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미래대학의 길, 우리는 어디에…'

2012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8월 22~23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됐다. '미래대학의 길, 우리는 어디에…(Academe and Administration, On the Way We Are)'를 주제로, 지난 5년간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온 경희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대학 발전의 중추인 '학술'과 '행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탐색했다. 학문과 평화, 학술과 실천의 지구적 탁월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창조의 여정을 점검하고, 부분과 전체의 조화로운 결합, 학술문화 조성 and 행정 전문화를 위한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원 총장은 "교수, 학생이 학술적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제도, 정책 차원의 서비스를 큰 폭으로 개선해, 구성원의 발전을 위한 필요와 요구를 '배려와 존중의 행정문화'로 수렴하자"고 당부했다.



### 2012학년도 하계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 개최

2012학년도 하계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이 7월 12일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희대학교가 국내 경영교육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준비 중인 국제 경영교육인증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의 현안과 경영교육 제공 확대 방안, 책임경영 교육, 경영대학 아너칼리지(Honor College) 설립 구상 등이 논의됐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체험을 충족시키는 다전공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영대학 강좌의 온라인 콘텐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12학년도 공학계열 연찬회 '공학의 도약, 경희의 미래'

2012학년도 공학계열 연찬회가 8월 17~18일 경북 문경에서 '공학의 도약, 경희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경희 공학의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이번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래 공학을 선도하기 위한 경희 공학계열의 개념적·실천적 토대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실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인원 총장은 연계협력 클러스터가 대학 구성원 간 학문적 소통과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건의사항이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교육·연구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본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수의 업적평가는 자율운영에 맡겨 학과별·전공별 특성을 살려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원 규모를 늘리는 데 기본적인 방침을 두고,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 2012학년도 전체교수회의 '대학다운 미래대학' 논의

2012학년도 전체교수회의가 3월 23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가지 않은 길(The Road Ahead, Empowering Global Eminence)'을 주제로,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특히 학술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 '창조의 여정-학술문화의 미래를 위해'를 통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UNAI-경희 국제회의 개최 등 그간의 성취를 배경으로, 경희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자 한다"며 대학발전을 이루는 여러 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축, 학술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경희가 지향하는 학술문화는, 교수들이 석학(碩學), 대가(大家), 거장(巨匠)의 꿈을 이어가고, 학생들은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깊은 성찰과 혜안, 통찰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다.

'퇴임교원 소회의 말씀' 영상 상영으로 시작한 전체교수회의는 감사패 전달, 2012학년도 신입교원 소개로 이어졌다. 이날 '미래협약, 미래전략'을 발표한 미래정책원 우응제 원장은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이상을 구현할 현실적 기반 확립을 위해 경희의 목표를 전 구성원이 공유하자"고 말했다. '재정과 공간 Finance21, Space21' 추진 계획 발표에서 재정사업위원회 최동주 위원장은 "경희학원의 유무형 보유자산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문적 탁월성과 부단한 진리 재구성을 향해 평생 노력하는 대가, 석학이 존중받는 대학 분위기 조성 등 학문적 권위 재건을 위한 '학술진흥 2020'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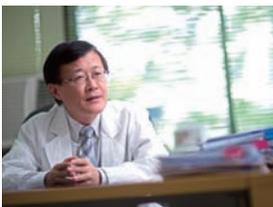
## 기부문화 확산

### 청강 김영훈 선생 유품 및 토지 기부



‘청강 김영훈 선생 유품 근대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축하 및 기부증서 전달식’이 2012년 10월 18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청강 김영훈(淸崗 金永勳, 1882~1974) 선생은 한국 근현대 한의학 역사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생의 유족은 유품 1,600여 점과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토지 46만㎡를 경희대에 기부하고, 국내 한의학 발전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품에는 2012년 8월 13일 문화재청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진료기록물 21건 955점이 포함돼 있다. 기부증서 전달식에서 조인원 총장은 “청강 김영훈 선생님의 가족께서 유품을 기증해주신 것은 한의학이 제2의 중흥을 통해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도록 경희대학교가 힘써 달라는 뜻”이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귀한 유산을 초석으로 삼아 한의과대학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대표인 김기수 전 포르투갈 대사는 1999년에 이미 청강 김영훈 선생의 유품을 경희대학교에 기탁했다. 또한, 김 전 대사의 아들인 김용건 포스코 캐나다 지사장은 매년 연구비를 기부하고 있다. 이로써 삼대에 걸쳐 물질, 금전적 기부를 실천하며 경희의 한의학 연구를 지원해왔다. 그동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은 기탁받은 청강 김영훈 선생의 유품을 연구해 논문을 발표하고 자료를 정리, 2011년 근대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다.

### 이태원 교수, 대학 발전기금 5억 원 쾌척



의과대학 신장내과 이태원 교수가 대학 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쾌척했다. 부친의 상속 유산을 정리하며 기부를 결정한 이태원 교수는 “1974년 의대에 입학해 30년 이상 경희와 함께하며 쌓아온 ‘경희 사랑’이 이번 발전기금 약정의 주된 계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전에 교육에 대한 염원을 갖고 계셨던 부친의 뜻을 기리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모금운동에 힘을 싣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이태원 교수 부친의 호인 ‘난곡’을 의미하는 ‘난곡장학기금’과 의과대학 신장내과교실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온 이태원 교수는 대외협력처의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 ‘매그놀리아 스토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2천만 원 약정으로 매달 기부 중이다.

### 김연수 동문, 한의과대학 발전기금·장학금 기부

서울 관악구 서림동(구 신림2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연수(한의학 1963) 동문이 한의학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한의과대학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쾌척, 2012년 9월까지 총 5억 2,100만 원을 기부했다.

어린시절 한약상을 운영하는 부친을 도왔던 김연수 동문은 한의사의 꿈을 품고 경희대 한의대에서 수학했다. 그는 1968년 김한의원을 개원한 후 10명 중 3명에게만 치료비를 받아도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김연수 동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진료비가 없어 한

의원을 찾지 못하는 환자는 물론 응급 환자를 위해 밤낮 없이 굶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산동네를 누비며 45년째 무료진료를 계속해오고 있다. 1977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초로 관악구청에 '한방무료진료실'을 개설, 봉사를 펼쳤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981년 4월 한의계 최초로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연수 동문은 장학사업에도 뜻을 두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2남 1녀의 자녀들과 사위 또한 의료인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차남인 김성준(한의학원 병리학 2004) 동문은 부친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매해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한의과대 학생 178명, 건축기금 1,500만 원 조성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한의과대학 신축의 성공을 염원하며 건축기금을 기부했다. 한의과대학은 그동안 교수, 동문, 학생, 직원,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축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특히 김남일 한의과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동문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 약 3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재학생 또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건축기금 모금 활동을 펼친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건축기금 14,854,000원을 조성했다. 한의과대학 학생 178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기금은 2012년 12월 6일 한의과대학 중경실에서 열린 '한의과대학 학생 건축기금 모금 전달식'에서 대학에 전달됐다.

### 이은태 명예교수,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토목공학과 이은태 명예교수가 2012년 9월 4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30여 년간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온 이은태 명예교수는 2012년 8월 정년퇴임식도 마다하고 퇴임식 비용까지 포함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토목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은태 명예교수는 지난 1993년부터 일반 발전기금 및 토목공학과 기금을 꾸준히 기부해왔다.



### 간호대 교수 6명, 명예의 전당 헌액

고객기부 교수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 헌액식 및 감사패 전달식이 2012년 12월 3일 서울캠퍼스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새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6명은 전원이 간호학과 대학 교수들로, 강현숙, 김광주, 김윤희, 이향련 명예교수와 현경선 간호과학대학장, 김원욱 교수 등이었다. 고객 기부 교수들은 모두 5,000만 원 이상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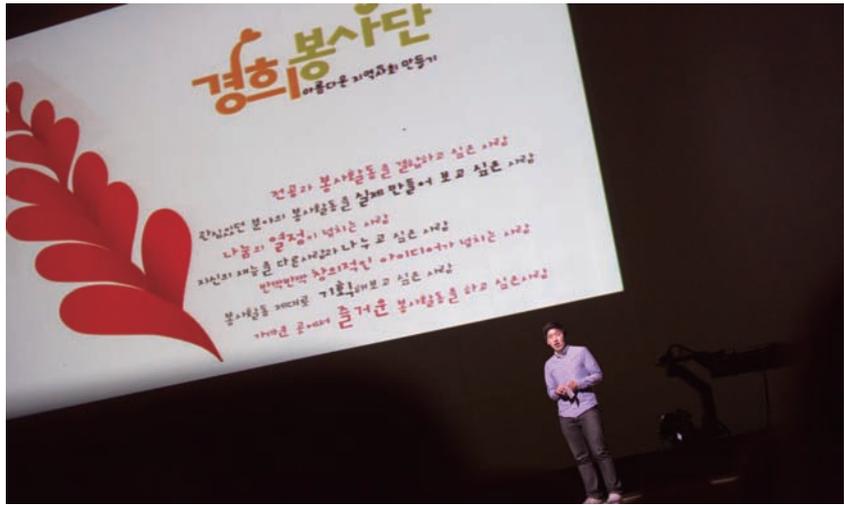
### 이지수·이진욱 학생, 한의과대학 건축기금 기부

한의과대학 이지수(한의학 2008) 학생과 이진욱(한의학 2010) 학생이 한의과대학 신축 기금으로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지수 학생은 장학금과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 원정대 수상 상금을 합쳐 기금을 마련했다. 이진욱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기부했다.

## 대학문화 부문 주요 성과

### 사회공헌·예술문화 축전 '2012 청록별의 희망노래'

'2012 청록별의 희망노래 - 젊음, 다시 희망하다'가 2012년 12월 4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학생과 교수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공헌축전과 예술문화 축전으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는 경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이룬 지난 1년간의 성취를 돌아보고, 희망을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공헌 축전에서는 '총장님과 T-Time'을 마련, 경희가 지향하는 사회공헌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날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한 현장활동이 소개됐다. '사랑'과 '연인', '애인', '연애' 등 남녀 간의 이성애를 중심으로 서술했던 단어의 정의를 '사람'으로 범위를 확장해 국립국어원에 제안한 학생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2012년 11월 7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네 단어의 정의가 수정됐다. 예술문화 축전 'ART·人·후마니타스'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과 수업의 결실이었다. 21개 예술교과목 수강생들은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한 고민의 결과를 노래, 악기 연주, 사물놀이, 춤 등 공연과 사진, 그림, 디자인 작품에 담아냈다.



### 2012학년도 국토순례대장정

'2012학년도 국토순례대장정'이 2012년 7월 30일~8월 13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총 61명의 참가 학생 전원은 낙오자 없이 약 200km를 완주했다. 이번 행사의 부제는 '소통과 성찰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국토순례대장정'으로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자신 및 타인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전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학생지원처는 전체 일정을 두 주로 나누어 1주차는 '고전 강독, 독서 토론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2주차는 '도보 기행'으로 구성했다. 도보 기행은 충북 단양에서 출발해 제천을 거쳐 강원도 원주와 횡성을 통과한 후 서울캠퍼스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 조인원 총장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 출간

조인원 총장의 교양학부 공개강좌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 강연과 토론 내용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정치와 정치, 그리고 정치』는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정치, 인간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로서의 정치, 인류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정치, 세 겹의 의미를 탐색한 책이다. 책에서 조인원 총장은 “불만에 찬 역사를 써 내려온 주체”가 정치지만, “잘못된 역사를 개선할 주체”도 정치라고 정의한 뒤, 정치는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 끌어안아야 할 숙명”이며,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정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우리 스스로 표현을 만들고 드러내는 과정, 혹은 그 표현을 함께 나누고, 숙의하고, 공감과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정치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한다.



### 경영대학원 특강, '이익과 가치,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개최

조인원 총장이 11월 6일 오비스홀에서 '이익과 가치,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Interests and Value: Can They be Happy Together?)'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인원 총장은 “우리가 이익과 가치의 관계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확산과 그에 따른 인식 변화의 역사 속에, 현대사회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경제'와 '자기충족적 이익'에서 찾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익과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조 총장은 “이익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집단이지만, 근본적인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인원 총장은 “자기중심적 집단이 진화 과정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도모하는 집단이 선택된다는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교수의 이론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며, 공동체를 위한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익과 가치의 행복한 동행은 우리들의 인식과 실천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정치'인 이 시대엔 각성된 시민적 가치, 인간과 지구의 존속을 담보하는 새로운 정치가 요청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희망나눔 콘서트 개최



국제캠퍼스 대동제 셋째 날인 2012년 5월 16일, 예술·디자인대학 A&D홀에서 '희망나눔 콘서트'가 개최됐다. 우리 사회에 꿈과 희망을 전파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연구소 서진규 소장, 야구재단 양준혁 이사장을 강연자로 초청,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를 모색하며 삶을 성찰하는 자리였다. 이날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층 가구 자녀 20명의 교육비로 사용될 기부금 모금행사도 진행됐다. 총학생회가 주최한 '희망나눔 콘서트'에는 경희 구성원 외에도 지역주민, 저소득층 가구 자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희망연사'로 초청된 희망연구소 서진규 소장은 "꿈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총장님과 즐기는 Brunch Time' 개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대동제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5일 '총장님과 즐기는 Brunch Time'을 열고, 조인원 총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임간교실에서 열린 'Brunch Time'에는 재학생, 유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150여 명이 참석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사말에서 조인원 총장은 "경희가 추구해온 문화, 가치는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나와 타인, 나와 공동체 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가치,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선택하는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앞날에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인원 총장과 참가 학생들이 함께 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인원 총장은 "20대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끈기 있고, 치열하게 묻는다면 미래에 좀 더 나은 폭넓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공이 무엇이든 치열하게 고민해 마음과 의식 세계를 넓히는 20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계적 명문 대학’ 다짐한 신년교례회

경희대학교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는 ‘신년교례회’가 2012년 1월 3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과 조인원 총장 등 경희 구성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 한 해 경희는 미래협약과 종합발전전략이라는 두 가지 큰 사업을 이뤄냈다”라며 “두 사업이 2012년에 성공적으로 출발해 안정적으로 다듬어진다면,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구현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2 경희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

‘2012 경희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11월 21~22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첫 날인 21일에는 기악과 1, 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경희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기악과 3, 4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경희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랐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는 1955년 창단한 이래, 매 학기 심포니 정기연주회, 필하모닉 정기연주회,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악합주 정기연주회 등 수많은 연주를 개최하고 있다.



### 경희를 바꾸는 원탁토론회 개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경희를 바꾸는 원탁토론회’가 2012년 3월 31일 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에서 개최됐다. 기존의 무력, 집단적인 학생총회를 토론과 의견수렴 형태인 ‘원탁토론회’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 민주적 방식의 새로운 대학문화를 창조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 1,334명은 ‘경희대학교의 미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학사제도, 등록금, 교육환경, 대학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학생대표 8명은 토론 결과를 오택열 국제부총장에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원시 인문학 교육 협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수원시는 2012년 2월 28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공직자 인문학 교육’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도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들은 수원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역사, 문화, 철학에 대한 인문학교육을 실시했다.

### 영문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교육 부문 통합대상 수상

경희대학교 영문 홈페이지(www.khu.ac.kr/eng)가 2012년 12월 6일 ‘제9회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교육 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국내 유일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 또는 리뉴얼된 데스크탑, 모바일 기반의 웹사이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평가한다. 2012년 5월 29일 오픈된 영문 홈페이지에는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 100여 개 국가에서 방문하고 있다.

# 전진하는 경희

‘스포츠 경희’의 이름을 드높인 한 해였다. ‘자주색 군단’ 경희 농구부는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와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 대학 최강임을 증명했다. 핸드볼, 양궁, 쇼트트랙에서도 우승 소식이 전해졌다. 경희 선수들은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다. 재학생들은 ‘창조와 도전’의 경희정신으로 각종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 호텔관광대학 선후배 3명은 400일 동안 ‘김치버스’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며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렸다. ‘2012 경희인의 밤’ 행사에서 24만 동문은 경희의 발전을 기원하며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지원을 약속했다.

## 체육부 연이은 선전

### 제93회 전국체전에서 금 7, 은 6, 동 6 수확

2012년 10월 11~17일 대구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경기 선수들이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차지했다. 태권도부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양궁부는 금메달 3개, 동메달 5개를 차지하며 양궁 명문의 이름을 떨쳤다. 특히, 정다소미(스포츠키도학 2009) 학생은 여자대학부 거리별과 종합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체조부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3년 만에 전국체전에 출전한 축구부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1년 전국체전 우승팀인 농구부도 프로선수로 구성된 국군체육부대(상무)에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드민턴 개인복식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2연패

농구부가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12년 7월 20일 경북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12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남자 대학부 결승전에서 경기대는 고려대에 60-58로 이겨 우승했다. 이날 3점 슛 4개를 포함, 22점을 득점하고 리바운드 9개를 기록한 두경민(스포츠키도학 2010) 학생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경기대학교 농구부는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에서도 2연패를 달성했다. 2012년 3월 19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서 경기대는 1·2라운드의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우승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까지 제패, 대학농구 최강자로 우뚝 섰다. 10월 3~4일 열린 챔피언 결정전 1·2차전에서 경기대는 각각 95-55, 91-73으로 중앙대에 승리했다. 정규리그 22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22.6점을 기록한 김민구(스포츠키도학 2010) 학생은 2년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규(스포츠키도학 2010) 학생은 챔피언 결정전 MVP에 선정됐다. 최부영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 2012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



핸드볼부가 '2012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SK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으며, 남자대학 1부와 2부로 나뉘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희대는 9월 5일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인 한국체육대와 접전을 펼친 끝에 26대23 스코어를 기록, 4승 1패로 동률을 이루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 제29회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양궁대회 남녀 대학부 단체전 동반 우승



양궁부가 제29회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남녀 대학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는 2012년 6월 18~22일 대구 율하체육공원에서 진행됐다. 22일 남자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희대는 한국체육대와 격돌, 227-223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대학부 단체전에서도 경희대는 결승전에서 계명대와 결전을 벌여 219-198로 승리했다. 정다소미 학생은 개인전 결승에서도 승리를 거둬, 대회 2관왕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 전국남녀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금 1, 은 2, 동 4 수확

2012년 10월 26~28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남녀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서 쇼트트랙부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따내는 성적을 올렸다. 여자대학부 1,500m 결승에 출전한 손수민(스포츠키도학 2010) 선수는 2분 46초 153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 2012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 준우승

야구부가 6월 4~21일 진행된 2012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경희대는 준결승전에서 동국대를 6-2로 제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2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경희대는 인하대를 만나 2-3으로 패하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 학생 수상 소식

### 최승현 학생, KB국민은행 '나도 뮤지컬 스타다!' 樂스타상

2012년 4월 27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나도 뮤지컬 스타다!' 본선에서 최승현(연극영화 2012) 학생이 KB스타 樂스타상(이하 락스타상)을 수상했다. 최승현 학생이 선택한 곡은 뮤지컬 <명성황후> 중 '그대는 나의 운명'으로, 명성황후를 30년간 연모해온 충신 흥계훈 장군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나도 뮤지컬 스타다!'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뮤지컬 오디션이다.



### 김원준 학생, 제10회 마이크로소프트 이매진컵 2012, 앱 챌린지 부문 3위

2012년 7월 6~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0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 이매진컵 2012(Imagine Cup 2012)'에서 김원준(컴퓨터공학 2003) 학생팀이 메트로 스타일 앱 챌린지 부문 3위를 차지했다. 김원준 학생은 팀에서 개발자 역할을 맡았다.

김원준 학생이 포함된 '톡톡(Tok Tok)' 팀은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윈도우8용 앱인 '해피넛(Hapeanut)'을 개발했다. '해피넛'은 구조작물로 활용되는 땅콩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법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땅콩 재배법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며 직접 기른 땅콩을 구조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앱이다. 이번 대회를 총괄한 알리드 아부하드바 MS 개발자 플랫폼 부문 부사장은 "'해피넛'은 윈도우8 마켓에 당장 등록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 박선아·서지혜·장광훈·권민기·이태호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석권

박선아(화학공학 2009), 서지혜(생체의공학 2010), 장광훈(전자전파공학 2006), 권민기(건축공학과 2006), 이태호(컴퓨터공학 2007) 학생이 2012년 10월 24일 개최된 제6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휩쓸었다. 경희대학교는 전국 56개 출전 대학 중 최다 수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자기소개서 등 취업 및 진학 인터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활동과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자기개발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 김우태·박주령 학생,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김우태(기초의과학 박사과정 2012) 학생과 박주령(교육학 박사과정 2012)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2년 상반기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에 선정됐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세계적 수준의 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노벨상 수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167명(인문사회 33명, 과학기술 134명)이다. 학비와 지원금이 월 250만 원씩 2년간, 총 6,000만 원 지원된다. 아울러 학문 분야별 석학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펠로우 간 교류 확대·상호발전을 위한 콘퍼런스, 포럼 등이 지원된다.



### 박소라·이동진 학생, 2012 대한민국 인재상

이동진(건축공학 2007), 박소라(사진·한의학 2005) 학생이 2012년 10월 14일 '2012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뛰어난 인성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창의적 사고로 탁월한 성취를 이룬 대학생 40명, 고교생 60명을 선정해 매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소라 학생은 한방진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 어르신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동진 학생은 아마존 정글 마라톤 완주, 히말라야 등정 등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받았다.



### 이강진 학생, 경향신문·서울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동시 당선

이강진(국어국문학 2007) 학생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2012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을 동시 석권했다. 이강진 학생은 시와 정치에 관한 평론 <위기의 시대에 대한 두 가지 처방 - 송경동과 장석원 시의 정치적 가능성>과 <중언의 시대를 살아가기: '시와 정치'는 무엇이었는가>를 각각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에 투고했다.

경향신문 당선작 <위기의 시대에 대한 두 가지 처방 - 송경동과 장석원 시의 정치적 가능성>은 당대 비평의 쟁점과 대면하면서 작품 논평과 이론적 논변을 결합시켜 패기 있게 밀고 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재원 학생, '2012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문 당선

이재원(국어국문학과 2004,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예정) 학생이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12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문에 당선됐다. 당선작은 <이름을 찾는 주체들의 문장 - 신해욱, 이근화, 심보선의 시를 중심으로>다. 본심 심사를 맡은 이광호, 김미현 심사위원은 "최근의 한국시에서 '나'의 동일성에서 벗어나 다인칭의 목소리로 나아가는 흐름을 의미화하고 있다"며, "젊은 시인들의 텍스트를 비평적인 틀로 엮어내는 문장력과 구성력이 돋보였다"고 전했다.

### 홍성원 학생, 경기도 교육감기 검 회장배 스키대회 3관왕

홍성원(스포츠지도학 2009) 학생이 2012년 1월 2~3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교육감기 검 회장배 스키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홍성원 학생은 여자대학 부회전, 대회전, 복합 부분에서 각각 48초 03, 32초 05, 1분 20초 08의 기록으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김현국 학생, 2012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특허청장상

김현국(기계공학 2007) 학생이 한국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2012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행기술 조사 부문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전기 자동차 냉난방 시스템의 연속운전 방법에 관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중요성을 효율 및 비용의 관점에서 판단했다.

### 호텔관광대 재학생·동문 ‘김치버스’ 400일 세계 투어

2011년 10월 23일 세계일주를 떠난 ‘김치버스’가 40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2012년 12월 18일 해단식을 가졌다. ‘김치버스’는 호텔관광대 조리·서비스경영학과 선후배 3명이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만든 프로젝트명이자 이들이 실제 타고 다닌 버스의 이름이다.

류시형(2002), 김승민(2003), 조석범(2006) 세 사람은 유럽과 미주 등 27개국, 130개 도시, 5만 200km를 누비며, 현지 학교와 세계음식축제, 유명 페스티벌 등에서 김치 시식행사를 펼쳤다. 김치말이 국수와 김치전 등 김치를 주재료로 한 한식뿐 아니라, 피자과 파스타, 브리또, 핫도그 등 세계 여러 음식에 김치를 접목한 퓨전 요리도 선보였다.



### 최유리 학생, 한국국제음식박람회 고맷 챌린지 부문 은메달

최유리(조리·외식학 석사과정 2010) 학생이 2012년 5월 1일부터 12일간 열린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한국국제음식박람회(IFK)에서 고맷(Gourmet·미식가) 챌린지 부문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맷 챌린지 부문은 뷔페식 요리를 선보이는 경연으로 경합에는 한국 국가대표 8개 팀을 포함, 전 세계에서 25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국제음식박람회는 세계조리사연맹(WACS)이 인증한 국내 최초 국제급 요리대회다.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3명, 전국 학생학술경연대회 대상 수상

2012년 11월 16일 열린 제4회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애나(2011), 박세웅(2011), 유청준(2011)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골유착 증진을 위한 임플란트 표면의 기능성 고분자 나노층 증착’ 논문을 발표했다. 지도는 권일근 교수가 맡았다. 세 학생은 이번 대상 수상으로, 2013년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 세계 학생학술경연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기간: 2012.1.1(일)~2012.12.31(월)

### 공식 일정 (총 638회)

#### 공식 회의: 298회

합동교무위원회, 발전위원회 등 각 위원회 회의  
총장 주재 부총장 회의, 실무부서장 회의, 의료기관장 회의  
단과대학 간담회  
구성원 대표 간담회

#### 면담: 205회

부총장 /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장 / 실무 부서장 등 교내 구성원 면담

#### 행사: 86회

교내외 공식 행사  
공식 오·만찬  
총동문회 행사



의료기관 연찬회



총장님과 즐기는 Brunch Time



슬라보예 지젝 환담

교외 인사 접견: 48회

정·관·재·학계 인사

국내외 자매교 인사

총동문회 인사

해외 교류협력기관 인사 및 외교 사절

각종 기부협약 체결 관련 인사

언론 인터뷰: 1회

〈동아일보〉



청록별의 희망노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무식



2012 대학농구리그 1라운드 결승전

## 총장 연설문

### 1. Miwon Lecture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초청 강연

환영사 | 2012년 8월 13일

## UNESCO와 경희 - 함께 풀어가야 할 인류의 과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리나 보코바 Excellency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 존엄과 평등, 상호존중을 위해 송고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를 대신해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희대학교 광릉 캠퍼스엔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탑엔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학술과 평화’의 길을 걸어온 경희 63년 역사를 상징합니다.

학술기관으로, 고등교육 기관으로 ‘학술의 궁극적 의미는 평화로 귀결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은 더 나은 인간과 사회, 문명을 위해 평화로운 문화세계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경희대학교 출범 4년 전인 1945년 설립됐습니다.

그 설립 취지를 유네스코 전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이면 문화가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인간의 문화세계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그 사이 수많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상호존중’이란 평화의 조건은 바로 경희가 추구해온 가치이기도 합니다.

경희는 ‘학술의 탁월성과 지구적 실천’을 지향해왔습니다.

평화로운 개인과 사회, 인류의 문화세계를 열어왔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를 교육하고, 더 나은 문명사회를 이끌어갈 연구와 봉사, 공적 실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경희의 설립 정신이기도 한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네스코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함께 유네스코 정신을 실천해가시는 보코바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코바 총장님께서 2009년 취임사에서 현대적 사유방식의 문제, '획일화' uniformization와 '배제' exclusion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문화적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휴머니즘' new humanism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경희가 오래 천착해온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엔 '현대문명의 한계와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희와 유네스코, 양 기관이 "UNESCO Chair on Future Civilizations"를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될 경희의 '인류문명클러스터'도 인간과 문명, 정치의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학술공동체의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은 특정 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주제입니다.

점증하는 세계화의 긴장.

빈곤, 소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난제.

여전히 풀어가야 할 민주화와 정의의 문제.

이 모두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접하게 될 보코바 총장님의 해안과 안목이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교훈을 주리라 믿습니다.

평화와 인류 복리를 위해 "지적, 도덕적 연대"를 강조하는 유네스코 정신에 동참하는 대학과 시민사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2.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31주년 기념 Peace BAR Festival 개최식

환영사 | 2012년 9월 17일

# 인간, 정치, 문명 – 우리의 평화담론은 어디로...

올해로 Peace BAR Festival이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81년, UN이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 선포한 후, 경희는 매해 국제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반세기 전, 이 날의 제안자인 경희의 설립자께서 인류평화, 평화의 날 구상에 담긴 비전과 철학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역사는 인간 마음의 거울입니다...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평화의 날을 제안한 동기는 이런 성찰적 마음의 지구적 표현입니다.”

UN은 선포에 즈음해, 이 날의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화의 날에 깃든 “평화이념을 기념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수단을 통해... UN은 정부, 세계시민과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UN과 경희는 지난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날 제정 30주년을 맞아 뉴욕 유엔본부와 이곳 평화의 전당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계로 화상 중계된 이 회의의 주제는 “Give Peace Another Chance”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환영사에서 ‘민주주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의제를 위해 전 세계 대학과 지성, 대학생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뒤이은 기초발제에서 경희는 <세계기금>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인도적 의제를 다루고, 지구촌 대학사회의 시민교육과 공공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폭력과 억압을 거부하는 인류.’

‘기아와 소외로부터 자유로운 인류.’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인류.’

인류를 향한 이런 꿈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제회의의 주제는 지난 30여 년 평화의 날 전통 위에 서있습니다.

“인간, 정치, 문명”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문제를 다루고 또 다뤄야합니다.

인간, 정치, 문명은 인간사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폭력 없는 평화,’ ‘삶의 기초 욕구를 충족하는 평화,’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평화.’  
이런 포괄적 의미의 평화를 위해, 인간, 정치, 문명의 지구적 성찰은 거듭되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두 세기 전, 니체(Friedrich W. Nietzsche)는 현대 인간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주체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군중과 대중의 집단적 힘이 인간의 ‘보다 나은 존재를 향한 창조적 여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 시대의 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도 세속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인간 영혼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세속적 판단과 이익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줬습니다.  
인간, 그 영원한 미궁, 모름의 세계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대하는 인간은 시대의 틀, 현대의 속박에 묶일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간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진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정치세계를 돌아보면, 정치는 긍정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정치는 조국과 국민, 보편과 통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익과 권력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거공학의 발달과 함께 ‘표심’ 읽는 ‘통합의 정치,’ ‘섬김의 정치’를 표방하지만, 인간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적 실천은 여전히 미흡해보입니다.

현대인, 현대정치의 이런 모습과 함께, 오늘의 문명사적 흐름 역시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질주하는 시장과 경제의 논리.  
그 앞에 방향 잃은 현대문명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편하게’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는 굶주림과 소외, 인권유린과 같은 기초적 삶의 문제(basic needs)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서구사회 역시 ‘점령하라 시위’와 같은 새로운 위기의 징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최근 들어 “세상은 평평하다”<sup>The World is Flat</sup>고 말합니다.  
깊어지는 상호존과 상호연결이 과학, 기술, 정보, 통신 혁명과 함께 평평한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공감의 시대'가 목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까뮈<sup>Albert Camus</sup>가 말하던 '못다 이룬 인류역사의 반 토막,' 경쟁과 배제, 패권을 넘어서 인간의 인간적 역사 구현은 아직도 요원해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풍요와 번영의 상징 마천루가 치솟은 지 오래됐습니다.

최근엔 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물결이 지구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시장과 사회의 연결과 접속이 눈부신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깨끗한 물 한 모금의 수난, 쌀 한 톨의 절규, 억압에 항거하는 투쟁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돕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위기, 정치의 위기가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정치, 문명의 위기를 다시 한 번 되짚지 않을 때, 평화로운 인류의 미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이젠베르크<sup>Werner K. Heisenberg</sup>의 지적처럼, 현대인류는 "부분과 전체"의 괴리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절된 사고와 패러다임 홍수 속에 인류는 '단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 정치, 문명에 관한 대화와 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리더십 변화가 지구촌 곳곳에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다가올 연말엔 한국에서도 대선이 치러집니다.

문명의 위기 징후도 우리의 일상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파고듭니다.

쓰나미로 인한 원전의 위험,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빙하, 거리로 내몰린 실직자의 고통, 넉 높은 기아와 질병의 절규, 폭정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분노,

일상화된 인류의 위협, 지구의 위험은 근본을 되짚으라는 '당대의 경고'로 떠오릅니다.

이번 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일대 이마누엘 월러스타인<sup>Immanuel Wallerstein</sup> 교수님이십니다.

월러스타인 교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 정치, 문명을 오래 천착해온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와 진화, 새로운 문명과 정치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분입니다.

저도 '새로운 개인과 정치, 사유방식의 탄생'을 예견한 윌러스타인 박사의 저서 <유토피스틱스>Utopistics와 <지식의 불확실성>The Uncertainties of Knowledge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구사회, 미래문명을 열어갈 탁월한 안목과 혜안을 주고 계십니다.

환영사를 마감하면서, 올해 흥미롭게 읽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텰판 그린브랫Stephen Greenblatt의 <빛나감>The Swerve: How the World Became Modern과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의 <지구의 사회적 정복>The Social Conquest of Earth입니다.

그린브랫은 '현대성은 어떻게 형성됐나'라는 문제를 추적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 중심엔 고대 철학자 루크레티우스Lucretius의 철학적 서사시가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On the Nature of Things란 시입니다.

중세 암흑기,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암암리에 회자되던 루크레티우스의 서사시가 15세기 어느 책 수집가에 의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2천 년 전 태어난 그 서사시엔 놀라운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사후세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원자가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는 가운데, 오묘한 생성과 소멸의 질서, 혹은 무질서를 만든다'는 상상을 펼칩니다.

고대에서 중세 암흑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루크레티우스의 시가 지하에 숨겨진 채 빛을 보지 못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그의 서사시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단테, 셰익스피어, 괴테, 흄스, 스피노자, 마키아벨리와 같은 예술가, 철학자, 문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사상의 큰 흐름을 이뤘습니다.

윌슨 교수의 <지구의 사회적 정복>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제겐 큰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윌슨 박사는 진화생물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이란 저서를 출간한 후, 진화의 과정이 이기적 '이익과 안위'를 따르는 종을 선택한다는

“종족 선택”<sup>kin selection</sup> 이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펴낸 책에선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합니다.

새로운 “그룹 선택”<sup>group selection</sup> 이론을 통해, 윌슨 교수는 진화 과정이 공동체 보존을 위한 가치를 도모하는 그룹을 최종 선택한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환영사에서 책 소개를 하는 것은 어물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장황하게 했습니다.

경희가 개교 이래 모색해온 ‘평화의 전통’을 최근의 학술 감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경희는 지난 60여 년 학술의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이런 대학 본연의 기능과 함께, 경희는 또 다른 소명을 추구해왔습니다.

‘학술의 지구적 실천,’ ‘대학의 공적 봉사’입니다.

이를 통해 경희는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모색해왔습니다.

‘학술과 평화.’

이 두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경희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진화,’ ‘보편을 향한 공적 실천’의 의미를 되새겨왔습니다.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운 결합을 모색하며, 인간과 문명의 무한한 열림, 그것의 공동체적 함의를 말해왔습니다.

“인간, 우주, 문명의 전일적<sup>全一的</sup> 사관.”

“인간 보편의 가치를 수렴하는 공동체적 감수성.”

그린브랫과 윌슨 교수의 노작이 담고 있는 키워드인 동시에, 경희가 지난 60여 년 추구해온 “문화세계”의 핵심가치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경희 교정에선 학술회의와 예술행사가 열립니다.

이를 통해 “인간, 정치, 문명의 미래”가 요청하는 평화담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원탁회의에 참여해주신 교내외 교수 여러분, “물의 정거장”을 공연하실 무용학과 교수, 학생 여러분, “평화의 날 헌정 음악회”를 준비해주신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학생 여러분, UNAI ASPIRE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 축제를 준비하는 지구사 회봉사단<sup>Global Service Corps</sup> 여러분.

경희 평화 주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끌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Magnolia 2012

인사말 | 2012년 12월 21일

## 학술과 평화, 그 여정과 함께

올해로 목련회의가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목련회의는 큰 주제로 열립니다.

“학술과 평화”입니다.

경희인에겐 친숙한 주제지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약하는 목련회의 자리엔 크고 다루기 벅찬 주제입니다.

지난 2월 설립자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기 위해, 경희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 “학술과 평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그 전통,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60여 년 전 만들어진 경희의 교가가 단초를 제공합니다.

교가 노랫말은 “온오한 학술연구, 온갖 노력” 기울이자로 시작합니다.

후렴은 이를 통해, 더 나은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노래합니다.

노랫말이 만들어질 즈음, 경희엔 법학, 문학, 정치학, 체육학, 4개 전공 학과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교직원이 200여 학생과 임시 판자교사 5개 동, 본부 건물, 700여 평의 캠퍼스에서 생활했습니다.

6·25 전쟁 중 피난민이 많이 모여 살던 부산 동대신동의 이 단출한 모습이 “학문과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희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술, 체육 계열 전공분야에 42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이 있습니다.

82개 학과가 있습니다.

32,000여 재학생과 2,000여 교수, 직원이 70여 만 평의 서울, 국제, 광릉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로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전쟁 중 세운 “학술과 평화”의 전통입니다.

오늘도 경희인은 그 숨결과 함께 캠퍼스의 일상을 보냅니다.

지난 5년 경희는 이 전통을 더한층 강화했습니다.

600여 교수진이 경희에 합류했습니다.

매년 120여 분이 경희에 합류한 셈입니다.

올해로 1,450여 분의 교수진이 학술의 미래를 열고 계십니다.

경희의 또 다른 소명, 학술의 공적 실천도 창조적으로 계승해가고 있습니다.

5~60년대 농촌봉사와 사회운동.

70년대 이후 이어진 평화운동과 세계시민운동.

이 역사와 함께, 경희는 지난 5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활로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9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열린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청년포럼.

더욱 활기를 띤 UN과 UNESCO, 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

지난해 초 설립된 휴머니타스칼리지와 지구사회봉사단.

이 모두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꿈꾸는 경희인의 숨결을 담고 있습니다.

### “학술과 실천”

이 두 수레바퀴는 다소 생소한 대학발전의 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진리 탐구의 장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하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학술의 공적 실천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더욱 가까이해야 할 미래대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2년 전 하버드대학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을 “공공봉사의 해” The Year of Public Service로 설정했습니다.

취직은 교수, 학생, 직원의 공적 실천을 더욱 활기차게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후, 이 대학은 세계보건연구원 Global Health Institute을 설립했습니다.

소외된 아프리카, 남미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제 간 연구와 봉사 활동을 적극 펼친다고 합니다.  
의학, 인류학, 사회학과 같은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진 120여 명과 학생들이 함께 학술활동의 실천적 미래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올해 이 대학 이사회에선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많은 세계적 연구·실천 기관 *global institutes* 을 만들어, 인류가 안고 있는 기아와 질병, 기후변화와 같은 삶의 의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대학의 공적 실천을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우연히 이 대학 인문대학장을 지낸 분의 책 한 권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선가 언급했습니다만, Excellence Without A Soul, 〈영혼 없는 수월성〉이란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21세기 대학이 처한 고등교육의 한계를 말합니다.  
대학행정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교육이든, 대학운영이든 인간의 내면 성찰 없는 대학의 선택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 빈민 없는 탁월성은 교육과 대학의 참된 미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책과 하버드의 조치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저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학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또 다른 대학이 경희의 지향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학술과 실천의 결합.  
경희의 지향이자, 미래대학의 또 다른 가치가 아닐까합니다.

몇 주 전, 우리 학생들이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청록별의 희망노래”라는 행사였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을 수강하는 6,000여 학생들의 현장조사와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성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해, 표준국어대사전의 5개 단어를 수정한 우리 학생들의 사례.  
친환경 캠퍼스 구현을 위한 '그린에코 캠퍼스 운동' 사례.

다양한 사례 발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실천철학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적 노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경희엔 이외에도 인간과 세상을 향한 '뛰는 가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희망,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노력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연구 활동.  
케냐 치안을 돕기 위한 호루라기 제작.  
어두운 골목길을 환히 밝혀주는 벽화 그리기.  
몽골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림사업.  
이 자리에서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사업과 봉사가 경희의 교정 안팎에서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학도 수시 입학 전형이 있었습니다.  
'왜 경희를 선택 했나'라는 질문에 지원한 학생의 90% 이상이 경희의 후마니타스 교육을 꼽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인문과 기초 학문의 심화교육, 더 나은 자아와 공동체를 고민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경희의 예비 학생, 그리고 학부모  
님들의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학술과 평화," "학술에 기반을 둔 대학의 공적 실천."  
이를 통해 경희는 앞으로도 대학의 존재이유를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지난 63년, 경희는 "학술과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여정엔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향한 염원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2012년이 저물어갑니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를 맞아 경희는 “학술과 평화”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든 ‘미래협약’과 ‘미래전략.’

며칠 후 착공될 ‘Space 21.’

우리가 애써 함께 이룬 이들 과업과 함께 “학술과 평화”의 또 다른 여정이 이제, 이곳 경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꿈,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를 위해 다시 한 번 뜻과 정성이 모아지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서로 위로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신년엔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4.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식사 | 2013년 2월 20일

## 치유와 공명, 배움의 길

반갑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대부분은 2009년에 입학하셨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은 입학연도가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2009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2009년엔 여러분의 모교 경희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희의 오랜 전통, “학문과 평화”와 함께 세계시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UN과 UNESCO, 세계시민 협의체가 함께했습니다.

소외와 인권, 갈등과 평화 같은 보편의제를 다뤘습니다.

‘더 나은 인간과 문명’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그간의 대학생활, 어떠셨는지요?

자신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소중한 꿈을 키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이후 마주할 캠퍼스 너머 세계를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 치유와 결핍 – 시대의 아픔으로...

우리나라 국민 30명 중 1명. 국민 10명 중 1명.

어떤 통계인지 궁금하시지요?

최근 우리 사회에 열풍을 일으킨 도서 구입자와 영화 관람자 수입이다.

지난 2010년 8월, 평화의 전당에선 특별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습니다.

그 해 우리 사회에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샌델 교수의 책은 출간된 지 1년 남짓한 기간에 130만 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의’와 같은 딱딱한 인문·사회과학 주제가 이처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반응, 왜 이처럼 뜨거웠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정한 구조와 도덕의 붕괴.’

‘근원적 성찰과 해법 없는 정치권.’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서 번민하는 시민들이 ‘정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130만 독자, 그 밖의 수백만 간접 독자와 화자가 치열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란 물음에 큰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의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사회 현상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미제라블 현상’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암울했던 사회 상황과 혁명의 전조를 그린 레미제라블이 5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합니다.

150여 년 전 출간된 빅토르 위고의 원작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 영화, 뮤지컬, 연극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영화와 뮤지컬로 소개됐습니다.

민중의 고통과 수난, 인간적 삶의 갈망을 그린 레미제라블이 최근 한국인, 한국 사회와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문명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쳤습니다.

이 시대를 거치며,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시대의 고통, 사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풍요 속 결핍과 모순’의 사회 심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경쟁사회와 함께 열린 100만 실업시대.’

‘폭증하는 자살율과 이유 없는 폭력의 연쇄 고리.’

‘대안 부재의 정치와 사회적 담론의 빈곤.’

성과와 성장 신화에 내몰린 개인의 삶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천착해야 할 인간의 숙명이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 배움의 두 열림

여러분은 지난 4년 배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화 교육을 접했습니다.  
전문지식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와 사회의 성장 신화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성취와 성장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 지식은 전문적이되,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지식과 배움의 이런 한계는 우리 지성사회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더 나은 인간을 추구하지 않는 배움.  
사회 안정과 성숙을 포괄하지 않는 배움.  
이런 배움은 제한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불안과 함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중후, 위로와 치유 열풍은 바로 이 불완전한 배움의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엔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대학에 가야한다.'  
'대학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다.'  
'전문지식은 개인이 원하고, 경제가 요구하는 수요의 연장선상에 서야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강박의 틀 속에서 지식과 배움은 그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결과는 상처와 치유의 반복입니다.  
그 중후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상처와 치유는 내면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와 공동체는 치유에 필요한 이해와 공명, 연민<sup>compassion</sup>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배움의 또 다른 길, 또 다른 열림입니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 성찰.  
공동체가 갖춰야 할 규범과 덕목.

이 둘을 연결할 혁신 의지와 사회적 실천.  
이를 위해 더 큰 배움과 학습의 장이 필요합니다.

### 배움의 길, 경희의 길

서구 대학 총장들은 전통적으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철학과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큰 배움의 길을 위해 지식과 학문의 참된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세속화, 현대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교육의 기회는 그 기반이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추세가 깊어지면서, 배움은 개인적 성취와 물질 성장 논리로 압축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하버드대학교 파우스트 총장은 교육과 배움의 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고등교육의 도구적 기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압축 성장에 따른 사회 혼란이 점점하면서 '큰 배움'의 기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에서 당장 활용할 지식을 전수해라.'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라.'  
'대학 경쟁력을 키워라.'  
사회에 회자되는 이 말의 문화적 근저에 우리 대학사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 성취와 물질 성장은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성취와 성장 동력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안정과 지속을 위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와 고통, 불안과 심려의 증후는 치유돼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배움의 또 다른 길, 공명과 연민의 학습이 기여할 공간이 있습니다.

대학은 말 그대로 大學, 큰 학문의 장입니다.

큰 학문, 큰 배움은 전공 지식과 인간의 길, 자연의 원리를 함께 성찰하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영원한 새로움을 창조하며, 혁신과 개선을 거듭하는 실천의 장입니다.

그 도전의 과정, 실천의 장이 대학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문을 나섭니다.

대학문을 나선다는 것은 배움의 종결이 아닙니다.

더 큰 자신, 더 큰 사회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배움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졸업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그때 처한 문제 풀이로만 삶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성취가 가능한 안정적 사회와 문화, 문명의 길은 이 기반이 유지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정의'에 대한 열풍.

21세기 우리 사회에 다시 탄생한 19세기 프랑스의 변혁 의식.

이에 대한 열광의 논거는 바로 큰 배움과 성찰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21세기 '인간화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긴 정치철학자 로베르토 옹거는 현대사회 모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주체의 각성"을 강조합니다.

인간 내면의 무한한 초월적 역량이 억압적 사회에 끊임없이 저항할 때, 더 나은 세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근간으로 "배움의 혁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생의 학습 현장에서 강조돼야 할 "인간과 우주의 원리."

"영원한 새로움과 창조적 보편에로의 도전."

유한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창조하는 것이 배움의 원천일 것입니다.

더 나은 우리들의 미래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학한 2009년은 경희가 더 넓은 세계와 조우한 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시민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기획됐습니다.

두 가지 구상이 기획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는 경희가 설립 이래 구현해온 배움의 공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인간과 문명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상은 기초와 전공, 실천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자기 발견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의 지극적 함축을 창조하는 ‘배움의 가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희는 더 나은 개인과 사회, 문명의 미래를 열고자 했습니다.

치유와 공명, 배움의 길.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뒀안길을 돌아보는 데 중요한 소재입니다.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의 꿈과 희망을 사회발전, 문명진보에 동참하게 하는 소중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4년의 배움, 100세 시대를 향해 거듭될 배움의 기회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경희는 그 꿈과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배움의 미래, 더 나은 인간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큰 배움의 길.

개인과 인류의 희망을 기리는 ‘경희의 교육혁신’이 함께 하겠습니다.

## 5. 2013학년도 입학식

환영사 | 2013년 2월 28일

# 내 안의 영웅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경희의 첫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희와의 첫 대면,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설레시지요?

설레고, 기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평화의 전당에서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서울, 국제 공동 입학식을 갖게 됐습니다.

3일간의 입학 행사가 여러분과 경희가 처음 만나는 설레고,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꿈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회를 위해 '대학인이 된다는 것'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경희를 선택할 때 고민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어느 대학이 내게 맞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난 연말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그때 지원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수시가 끝난 후 저는 특별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면접에서 "왜 경희를 선택했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자 약 90%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면접을 담당했던 그 교수님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수험생들이 후마니타스칼리지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준비할 때, 두 가지 구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식의 근본 가치는 인간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문세계의 실천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인간 세계를 위해 학문의 실천적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근간입니다.

사실 이 구상은 평범한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대학의 역사와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현실은 근래 들어 많이 변했습니다.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추세와 함께, 대학은 어느덧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과 개인적 성취.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흔히 말하는 “성장 신화”의 요구와 함께 대학의 전통 가치는 그 기반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의 “개발 연대”가 말해주듯이, 성장과 번영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가치전도입니다.

삶의 수단이 돼야 할 성장과 부가 목적 그 자체가 됐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학문, 함께 나눠야 할 인간애에 관한 지식은 뒷전으로 물러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 회장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지요?

그 분은 대학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대학 3학년 시절 중퇴했다고 합니다.

중퇴 후 수십 년이 지난 2007년, 하버드대학교는 게이츠 회장을 초청했습니다.

연설에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대학을 떠날 땐 미국사회 수백만 젊은이들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개발도상국 수백만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긴 후, 게이츠 회장은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이끌고 계신 교수님, 학장님,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교수 정년을 심사할 때, 커리큘럼을 만들 때, 학생들의 졸업 요건을 결정할 때..., 이렇게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 가난, 기아, 질병, 불평등과 같은 인류의 난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을 헌정하고 있나요?’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 게이츠 회장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까닭은 바로 이 물음에 담긴 그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하버드대학교는 2010년을 “공공봉사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해 졸업식사에서 드루 파우스트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설립자들은 교육의 궤적이 자기발전에서 공공행동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졸업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졸업장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입학한 경희의 전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문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철학과 함께 경희는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인간을 위한 학문.

이 가치를 지향하며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지난 1974년, 경희의 설립자계선 세계인류학자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인간적인 차원의 삶으로 이끄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교육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 창조를 가르칩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마음도 개척합니다.’

미래는 역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 이뤄집니다.

우리가 쌓아온 과거와의 ‘회귀적 대화’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이 발현되는 것이 미래일 것입니다.

경희의 미래도 이런 문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학술과 평화의 전통과 대화하며, 함께 일궈갈 상상의 세계.'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내일을 열어갈 우리들의 실천 세계.'  
역사와의 대화, 상상과 실천의 세계가 곧 경희의 미래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희의 미래를 펼쳐갈 주역입니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그려갈 학술과 실천의 여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 설레는 일일 것입니다.  
젊은 꿈을 안고, 도전과 창조를 길을 나서는 일.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꿈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선 설렘 못지않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또 때에 따라선 남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 정신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는 과도기에 처해있습니다.  
번영과 풍요의 뒤편길에 남겨진 빈곤과 소외, 갈등과 혼란.  
이 모두 치열한 숙고와 냉철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눈을 들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의 비극.  
하루 1달러를 마련하지 못해 기아와 병마에 시달리는 삶의 절규.  
생각 차이, 이념 차이가 빚어내는 온갖 갈등과 폭력.  
생태파괴와 기후변화.  
우리 대학인, 사회인, 세계인이 함께 풀어가야 할 도전적 과제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가 곧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세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이끌어내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웅적 개입"<sup>heroic engagement</sup>이라 부릅니다.

영웅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용기,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인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의라고 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영웅도 인간입니다.  
'인간에 내재된 무한한 열림과 초극의 가능성.'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열어가는 것.'  
이런 가능성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영웅일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적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 제도와 문화에 사로잡힌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로잡힘'을 넘어서면 종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이 다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인간은 매우 미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무너지고, 이익 추구를 위해 위선과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순간'엔 '나 너머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세상의 굶주림과 소외에 분노합니다.  
불의와 불평등에 화를 냅니다.  
제한적이고, 나약한 나를 넘어설 때, 우리는 또 다른 존재의 지평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벗어남과 넘어섬, 또 다른 나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근원적 의미는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식과 지혜, 재능의 실천적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큰 학문입니다.  
큰 배움의 길일 것입니다.

인사말을 마감하면서, 경희학원 설립자의 마지막 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를 축약하고자 합니다.

‘끝없는 저 하늘  
하늘 뒤에 하늘이  
그 뒤에 또 아득한 하늘이 이어진다...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이고  
또 무엇인가?  
... 내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원대한 나’로의 여정에 큰 응원을 보냅니다.

경희의 1천 4백여 교수님, 5백여 교직원 선생님, 2만 7천여 선배들, 그리고 23만여 동문이 큰 박수를 보냅니다.

# 통계로 본 경희 2012

주요 지표 (서울·국제캠퍼스, 의료기관)

2013. 3. 1 기준

## 1.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1 결산	2012 예산
대학(서울/국제 통합공시)	4,471	4,767
산학협력단(서울/국제 통합공시)	1,411 <sup>주)</sup>	1,577
경희의료원	2,946	2,895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021	2,081

\* 2011: 결산 기준 / 2012: 추경예산 기준

천만에서 반올림

주) 자산 및 부채수입 442억 원은 예산배정사항이 아니므로 제외

## 2. 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교수	481	247	728
전임교원			
부교수	238	129	367
조교수	232	111	343
전임강사	-	-	-
총 교원수	951	487	1,438

## 3.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일반직	208	160	368
연구직	8	5	13
고용직	15	9	24
기능직	46	35	81
연봉계약직	-	12	12
총 직원수	277	221	498

## 4. 의료기관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무직	173	102
간호직	766	551
약무직	38	36
의료기사직	219	162
연구직	9	1
기능직	490	-
임상계약직 교원	73	66
전공의	592	184
기타	41	17
총계	2,401	1,119

## 5.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학부	13,016	12,340	25,356
대학원	4,850	1,827	6,677
총 학생수	17,866	14,167	32,033

\* 대학정보공시(2012. 4. 1 기준)

## 6. 취업률

단위: %

구분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서울	54.0
국제	55.5
계	54.7

\* 기준일: 2012. 6. 1(2011. 8. 2012. 2 졸업생), 학부기준







## 목련리포트

2013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발행일 2013년 4월 24일

발행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www.khupress.com](http://www.khupress.com)

[khsd3080@khu.ac.kr](mailto:khsd3080@khu.ac.kr)

© 경희대학교, 2013

ISSN 2005-7539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